

마음나래 상담후기 공모전

누군가의 용기가 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공모안내

참여대상 '24~'25년 마음나래 심리상담 참여자

공모내용

- 나만의 상담경험담
- 상담을 통해 변화된 나의 이야기
- 상담을 추천하는 이유 등

참여일정

모집 기간 25.10.01(수) ~ 25.10.24(금)
공모 심사 25.10.27(월) ~ 25.10.31(금)
결과 발표 25.11.05(수)

시상

대상 · 1명	최우수상 · 5명	우수상 · 20명
10만원 신세계 상품권	5만원 신세계 상품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참여방법

- 1 마음나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aumnarae.co.kr>)
- 2 소통공간-공지사항 내 양식 다운로드
- 3 양식 작성 후 hjryu@huno.kr 로 제출
* 제출명 : 마음나래 후기공모전_홍길동



참여 QR코드

관련문의

휴노 EAP 사업부 ☎ 02-6949-1952 @교정마음나래

교정

vol.593.
2025. October

10

C h a n g e

 법무부 교정본부

Contents

vol.593_2025. October



아름다운 동행

04 함께하는 길

떠돌이 _ 비망록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前 교정본부장)

08 생각의 창

형사전자소송 시대, 차세대 KICS로 여는
스마트 교정행정
김희선 교정본부 보안과 교감

12 우리는 한마음

정우회 회원의 문방 '연서회'
은은한 묵향 속 그윽한 성찰
인터뷰 | 연서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정우회 소모임

교정 이야기

16 교정 이모저모 ①

제7회 아시아 교정긴급대응팀 대회,
한국팀 종합 3위 성과

18 교정 이모저모 ②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본격 도입
수용자 심리상담 전문성 강화 기대

20 교정 기관

법조타운 한복판, 과밀수용 속
출정수용자의 든든한 동행자
인천구치소

26 교정과 사람들

단순 치료 넘어 수용자 재활로
'건강'과 '사회 복귀'의 이음새
인천구치소 의료과

교정 아카이브

30 교정 포커스

영국 정부의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와 시사점(하)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42 교정 논문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의 효과
박근영 진주교도소 보안과 교위

66 교정 리포트

보호소년을 위한 회복적 교정교육:
갈등을 넘어 성장으로
지원근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교정 뉴스

90 교정본부 NEWS

92 교정기관 NEWS

99 모범 공무원

96 독자마당



COVER STORY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지켜온 시간 위로 조금씩 쌓여오다,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되면 서서히 시작됩니다. 교정의 길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모여, 어제보다 더 단단한 오늘을 만들고, 오늘이 단단한 만큼 내일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은 더욱 탄탄해 집니다. 변화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믿음 속에서 변화를 준비하며, 더 큰 변화를 위해 나아갑니다.

아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발행인 이흥연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발행일 2025년 10월 2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인스타그램 [instagram/korea_correctional_service/](https://www.instagram.com/korea_correctional_service/)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떠돌이의 비망록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
(前 교정본부장)

1987년 교감이던 시절, 2년간의 청송 근무를 마친 후 떠나오기 직전에 가족 동반으로 안동댐을 찾았었습니다. 떠나 가면 다시는 쉽게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장소인지라, 머물렀던 격지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눈에 담아두고자 큰마음 먹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동댐에서 배도 타고 사진도 여러 장 찍으며 한나절을 즐겁게 보내고 돌아왔었지요.

그러나 웬걸, 석별의 사진첩을 미처 열어 보기도 전인 1990년 교정관으로 승진하니 다시 청송으로 발령이 났었고, 어쩔 그 동네와는 세월의 수레바퀴에도 끊이지 않는 인연의 길진 실이라도 꿰였는지 1999년 12월에는 다시 안동교도소장으로 발령이 나기에 이르니, 이삿짐을 꾸리는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안동댐의 물살은 경쾌한 찰랑거림으로 손을 흔들며 반겨 주었고, 그때마다 다시 배 타고 노닐며 사진 한 판 아니 찍을 수 없었으니, 지난 87년도의 그 성급했던 작별의 마음짓이 다만 싱겁고 민망할 따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77년 교정간부후보생 교육을 이수한 이후, 2010년 교정 본부장 보임을 마지막으로 33년간의 교도관 생활을 마감하기까지 대략 스무서너 번 단 boots를 꾸렸었던 것 같습니다. 빈번한 인사이동이었던 탓에 떠돌이와 떠돌이 새삼스럽지도 않았고, 삶의 새로운 등지를 틀 때마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머물곤 했었지요. 그렇듯 보따리를 싸고 푸는 일에 익숙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하여 떠나고 또 만나는 일이 수월해지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특하면 날아오는 사령장을 손에 쥐고 이곳저곳 쉬임없이 발품 팔며 떠돌았지만 떠남의 길 끝에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가끔씩은 불쑥불쑥 솟구치는 알 수 없는 흔들림에 마음을 힘껏 부여잡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멀고 긴 세월의 뒤편길을 그렇듯 서성이다 보면 아득한 시간의 여울에 흘러보낸, 꼭꼭 숨어있어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옛 추억의 장소를 조우하는 망외의 행운(?)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번 지나쳐 버린 장소를 오랜 시간이 흘러 해 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터, 그 오랜 과거를 문득 마주하여 오늘에 되새기는 가슴 먹먹하고 마음 축축한 회상의 자맥질을 거듭하노라면, '시간과 존재의 반복성', '스스로를 품고 도는 삶의 원형적 순환' 같은 어려운 말에도 서슴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되지요.



대구청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대명동 대구청소재지에서 한 블록만 내려가면 안지랑 사거리와 추억 속의 골목 입구 삼각진 모양의 2층 건물이 있을 줄은 전혀 모른 채 지냈습니다. 근무한 지 달포가 지난 후에야 밤길 산책을 나섰다가 그야말로 우연히 그 장소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층 건물이 숲을 이룬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우측 안지랑 입구를 제외하고는 주변 모두가 하나같이 논밭을 이루고 있었던 터라 사위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날 밤 안지랑 사거리 우측 골목길의 삼각진 2층 건물을 마주하고는 그 건물의 외벽에 손을 대자니,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감격과 함께 파란만장했던 내 어린 청춘의 그림자가 그 건물에 길게 드리워져 오는 것만 같아 마음이 데워져 왔습니다.

고교 시절 야간부로 적을 옮기고 주간에는 취업했던 일명 근로학생이었던 시절, 모 구청의 지적협회 측량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공고재학생이었던 터라 제도기를 이용한 도면작성은 물론 현장의 측량 기능 또한 6개월쯤 지나자 어렵지 않게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측량 기사가 바쁜 약속이 있는 날이면 간단한 측량업무 정도는 보조원으로서 일임받아 처리하곤 했습니다. 당시 안지랑 사거리 우측 골목길 입구 삼각형 2층 건물의 분할측량도 그렇게 하여 직접 맡아 처리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막 창문 공사를 하고 있던 신축 건물이었는데 세월을 머금은 것들은 다 부식되고 녹이 슬기 마련인 터, 37년 만에 마주한 그 건물은 용도가 폐기된 듯 창문마다 나무 가림판이 덧대어져 있는 것이 어쩔 지난 시간의 흔적마저 모두 봉인해 버린 듯해 허허로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우연한 해후는 강물 같은 뒤척임으로 마음을 흔들어 그 건물의 벽에 손을 대고 한참을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4년 안양 평촌 신도시에 아예 눌러앉기로 작정한 것은, 아이들의 교육상 더 이상은 가솔들을 대동하여 도시를 떠돌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였고, 더불어 본부를 비롯해 인근의 여러 교정시설로 출퇴근이 가능하겠다는 지리적 이점 또한 고려한 때문이었습니다. 안양으로 이사를 한 후 모처럼 가족 모두가 안양유원지로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공용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고 잠시 걸은 후 유원지 초입의 두부 전문 식당을 지나치다가, 식당 옆의 싸리나무 울타리가 쳐진 공터를 보는 순간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안양 유원지가 내 첫걸음이 아님을 미련스럽게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약 20년 전쯤 그 공터는 딸기를 팔던 장소였고, 친구와 둘이서 그날 첫 만남을 가졌던 아가씨 두 명과 함께 거기서 맛있게 딸기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던 기억이 새로웠습니다. 고개 흔들며 얼른 그 터를 지나쳤지만, 그러나 마음은 회상의 더듬이를 들고 홀로 뒤쳐져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서는 걸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70년대 중반 서울 상계동 독서실에서 소위 ‘출세’를 꿈꾸던 친구들과 코피 터지

게 학업에 정진하다가, 늦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친구 한 명과 바둑판을 들고 독서실 뒤 수락산 자락을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넓은 바위를 차지하고 앉아 힌들 검은돌 착수하며 신선놀음을 흥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약수터를 가는 길인 듯 아가씨 두 명이 우리를 지나쳐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어찌나 곱고 예쁘게만 보이던지 우리는 아무 말 없이도 서로 통한 듯 눈을 마주치고는 재빨리 바둑판을 접어버리고 아가씨들을 뒤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뒤따르며 말을 걸어도 웃을 뿐 전혀 응답이 없었던 것을, 약수터에 이르러 가판대의 콜라를 집어 건네길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말이 오갈 수 있었답니다. 하산길에는 먹혀들거나 말거나 일주일 후의 만남까지 언급할 수 있었고, 천우신조인지 일주일 후 그녀들이 약속 장소에 나왔던 터라,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찾아온 곳이 난생처음 발을 디딘 안양 유원지였던 것입니다. 싸리나무 울타리 쳐진 딸기 가게에 들렀다가, 그때만 해도 고즈넉했던 유원지 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유원지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니 무성하게 우거진 숲 사이로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고하게 비취지는 큰 건물이 있어 다가갔더니 입구 기둥에 ‘안양소녀원’이라는 뜻밖의 표지판이 있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늑하고 조용한 주변의 풍경 탓에 놀라움보다는 그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으로 입을 맞출 따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레 각자의 짝을 이루고 1년 남짓 만남을 가졌습니다. 1년 후의 헤어짐이 당시는 무척 아팠지만, 돌이켜 보면 가난하고 무망한 공시생에게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친구가 되어 준 그녀가 다만 감사할 따름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모든 삶에는 아픔과 아쉬움이 동반되기 마련이고 우리의 기억은 그 아픔과 아쉬움이 남긴 흔적이라는 말에 백번 동의하며, 싸리나무집 공터 앞에서 뒤쳐져 버린 마음의 걸음을 재촉하고자 얼른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 세월이 한참 더 흘러 서울청장으로 재직할 때는, 안양예술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동 유원지 미술전시관 개관식에 안양시장이 참석을 요망하여 들렸는데, 지나가는 차창 너머로 그 옛날의 싸리나무집 공터가 아직 그대로인 채 눈에 들어와 혼자 쓴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어쩔 대구 안지랑 사거리의 들판 길에 유난히 홀로 도드라졌든 삼각형 2층 건물의 기세 좋은 오름이, 혹은 안양소녀원의 그 고고했던 풍광과 자태가 우연처럼 내 삶을 이끌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무의식 속 기억들이 그렇게 운명처럼 추억의 장소를 뒤쫓아 헤메인 것인지 알 수 없으니, ‘클래식에 듣는 훈련이 필요하듯’ 삶 또한 마음에 되새기는 훈련이 필요할 성싶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은 시간의 담금질을 견디며 천천히 정제되어 간다’고 했으니, 옛 시절의 그 떠남과 만남들, 반은 필연같고 반은 우연같은 시간 모두를 다만 ‘떠돌아 온 자의 비망록’으로 가슴에 담아 토닥일 따름이겠습니다.

형사전자소송 시대, 차세대 KICS로 여는 스마트 교정행정



김희선
교정본부 보안과 교감

2024년 10월 20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었다.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망 기반의 전자문서 처리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정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들은 법 시행에 맞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사업을 준비했고, 같은 달 차세대 KICS 교정시스템을 오픈하였다. 당시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아 ‘완전 전자화’라고 부르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으나, 올해 10월 10일 법원 시스템이 개통되면 드디어 본격적인 형사전자소송 시대가 열린다고 할 것이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주요내용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2021년 10월에 제정되어 약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되었다. 이 법은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전자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은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에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은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처리·유통해야 하며, 차세대 KICS에서 문서를 작성해 행정전자서명을 한 뒤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형사사법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국가안보 관련 사건이나 대형 도면 등 전자문서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이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정현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이전에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입소할 때 영장과 판결문을 종이서류로 받아 직원이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차세대 KICS를 통해 전자문서가 자동으로 수신된다.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전송한 전자문서가 시스템에 도착하면 담당 직원은 이를 접수한 뒤 곧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에 담긴 주요 데이터가 자동으로 처리 과정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은 별도의 자료 요청이나 수작업 입력 없이도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한 번 입력된 전자정보를 여러 기관이 함께 활용하기 때문에 자료 불일치나 오탈자 같은 오류가 줄어들고 업무 정확성도 높아진다.

한편 전자문서는 주고받는 모든 과정이 로그(log)로 남는다. 누가 언제 문서를 전송하고 열람했는지가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책임 소재도 명확해진다. 문서 송수신 시간 역시 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착오를 줄이고 공정한 업무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영장 제도의 도입

형사절차 디지털화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전자영장 제도의 도입이다. 전자영장이란 법관이 전자서명으로 발부한 영장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고, 집행자가 피집행자에게 전자 형태로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전자적으로 발부되면 차세대 KICS를 통해 검찰을 경유하여 집행지휘서와 함께 교정기관으로 전송된다. 교정공무원은 컴퓨터 화면에서 영장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수용자에게 보여주거나 전자영장을 출력해 종이 형태로 제시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전자영장은 1회에 한해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물은 원본으로 인정된다. 또한 영장 사본과 권리고지확인서 역시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다. 앞으로 모바일 KICS가 구축되면, 전자영장을 모바일 기기에서 바로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영장 집행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통신기관 피집행자에게 자료만을 제공받는 경우 인터넷망에 구축된 전용포털에 영장을 게시하거나 메일로 송부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을 중심으로 기관별로 진행 중이다.

전자적 송달 체계의 변화

대다수의 교정공무원들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소송서류 송달 체계의 전환일 것이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소송서류를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경우 구금되어 있으므로 차세대 KICS 교정시스템으로 송달한다(2026년 9월 28일 시행). 현재 소송서류는 우편 송달 시스템을 기반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각 단계마다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작업을 거치는 방식이라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자적 송달 체계로 전환되면, 소송서류의 접수부터 폐기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전자소송서류에 담긴 성명 등의 주요 데이터를 이용해 수신된 문서는 해당 수용자에게 편철되고, KICS를 활용해 수용자별·수용동별 서류 분류가 가능해진다. 또한 서류 처리 건수가 많은 기관에는 고속 프린터가 우선적으로 도입되어 서류 출력에 걸리는 시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서류의 송달에 관해 형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은 구속된 사람의 경우 구금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차세대 KICS 교정시스템에 전자소송서류 도달 시 송달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정기관에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적 송달 체계로의 전환은 법적 의무이자,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본부 차세대 KICS팀에서는 차세대 KICS 교정시스템에 전자적 송달 및 통지기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맺음말

형사사법기관 간 전자문서 연계와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의 본격 개통은 교정현장에 중대한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종이서류 처리에 소요되던 시간과 인력을 절약해 수용자 교정·관리와 안전 확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거나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스마트 교정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전자문서로 하나로 연결된 형사사법 체계는 교정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줄 것이다.

정우회 회원의 문방 ‘연서회’ 은은한 묵향 속 그윽한 성찰

연서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정우회 소모임



아름다운 문방

12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정우회 소모임

INTERVIEW

서예의 세계에서 문방사우(文房四友, 紙·筆·硯·墨) 중 종이(紙)는 다정한 청자(聽者)로 의인화될 수 있다. 말 못 한 사연도, 지난 세월의 무게도 가감 없이 받아내는 품 넓은 벗이기 때문이다. 반면 붓은 거침없는 직언자(直言者)다. 소홀했던 마음을 마주하게 하며, 방치했던 감정들을 훑아보게 한다. 그런가 하면 버루는 오래도록 묵묵히 길을 일러주는 스승이며, 먹은 제 몸을 갈아붓의 길을 빛어내는 헌신 깊은 친구와 같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문방에서 피어나는 배움과 우정

1983년 11월 4일 발족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이하 교정동우회)는 정부의 퇴직공무원 친목단체 결성 촉구 방침에 부응하는 전국 규모의 법정단체다. 그리고 교정동우회 출범 이전부터 교정기관장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모임이 바로 ‘정우회’라는 이름의 특별회다.

정우회 회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공직을 마친 뒤에도 배움과 교류를 이어가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한 바람의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연서회(硯書會)인 것.

이름 그대로 버루(硯)를 앞에 두고 글씨(書)로 교류하는 이 서예동호회는 2009년 4월 15일 첫 모임을 열었다. 이후 2013년 7월 30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법률 제11952호)이 제정·시행되면서 교정동우회가 법률적 근거를 갖춘 단체로 승격되자, 연서회는 자연스럽게 그 산하 조직으로 편성됐다.

붓끝에서 길러진 안목과 성취

지난 9월 중순, 교정동우회 사무실 인근에 마련된 연서회의 문방에는 아홉 명의 회원이 모여들었다. 이후 각자의 사우가 책상 위에 정갈히 놓이자 공간은 단숨에 묵향으로 번졌다. 도구를 펼쳐놓는 단순 행위에 불과했으나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이어온 습관과 정성,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진지하

게 맞이하겠다는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손끝에서 시작된 힘은 팔과 어깨로 이어지고, 다시 마음의 결을 타고 흐른다. 종이를 스치는 붓털의 사각거림, 붓끝에 맺혔다 흩어지는 먹물의 무게, 은은히 퍼지는 묵향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의식이 되어 ‘몰입’으로 수렴됐다. 바로 연서회 회원들이 서예를 단순한 기록이 아닌, 내면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거울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문방에만 머물며 정적인 활동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글쓰기와 몰입 속에서 쌓은 감각과 성찰을 바탕으로 경험의 폭을 적극적으로 넓혀간다. 서예에 대한 안목과 소양을 기르기 위해 전시회를 찾고, 때로는 공자의 탄생지와 같은 서예 명소를 찾아 해외 답사를 하며 그 유산을 눈과 마음에 새기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 모두가 결국은 마음의 깊이를 더하는 밑거름으로, 그 결실은 다시 붓끝에 닿아 서예라는 행위 자체와 글씨를 통해 배어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연서회 회원들의 발자취는 눈부신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70대 후반부터 90대 중반에 있는 아홉 명 모두 한국서예미술진흥협회 초대작가로 등단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과 대한민국서예미술공모대전 등 주요 대회에서 초대작가상, 우수상, 특선, 삼채상 등을 수상하며 필력을 인정받았다. 지도를 맡고 있는 오산 권희영 회원은 물론, 현암

안현석, 충암 김차승, 이산 정원섭 등 회원들¹⁾의 성취는 단순한 수상 실적을 넘어선다. 그것은 오랜 수련과 고요한 정진이 그 삶에 남긴 무늬, 곧 인문학의 향기인 것이다.

서예의 시간, 초심과 겸손의 합주

연서회의 서예 학습은 한자가 탄생하고 발전해 온 흐름을 따라 진행된다. 붓을 잡는 기본 기술을 익힌 뒤,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 순으로 다양한 서체를 배운다. 이는 한자가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 이어져 온 방식으로, 결국 연서회 회원들은 서체의 발전 단계와 미학을 따라 붓을 움직이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셈이다. 학습 방식도 체계적이다. 사부가 제공하는 16자 체본(體本)을 일주일 동안 임시(臨書)하며 반복 연습을 하고, 차주에는 연습한 글씨에 대한 조언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식이다. 이어 새로운 체본으로 또 연습을 계속해 가다 보면, 어느새 회원들은 붓과 종이가 전하는 미묘한 감각에 손과 마음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서예는 단순한 글씨 연습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과 정신은 물론 역사와 문화를 함께 품으며 스스로를 마주하는 여정이다. 연서회 회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그 길 위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10년 이상 붓을 잡아 왔어도, 저희 중 자신의 필력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필묵 앞에선 늘 처음 배우는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연서회가 소박한 모임인 듯

보여도, 붓과 종이, 먹과 베틀 앞에서 보내는 매순간이 성찰인 겁니다.”

공직의 무게 벗고, 개인적 사유(思惟)를 입다

연서회 회원들도 현역 시절에는 늘 경직된 모습이었다고 한다. 또한, 한 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는 공직자의 무게, 수용자와 사회를 동시에 마주해야 했던 긴장감은 여전히 그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 있으리라.

그러나 이곳, 문방에서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경직된 책임자의 얼굴은 사라지고, 묵향이 스민 따뜻한 기운만이 흘러넘친다. 손에 잡힌 붓끝은 예리하지만, 표정에는 여유와 미소가 감돈다. 문방에 앉은 순간만큼은 세월의 길이와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마주할 따름이다. 현재 연서회는 아홉 명의 정예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서예에 관심 있는 후배들이 새로 합류한다면 연서회의 배움과 교류는 더욱 활기를 띠고, 서예가 퇴임 후 정서활동으로 자리 잡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리하여 묵향 속에서 쌓아온 배움과 우정이 다음 세대의 손길과 만나 더 깊고 넓게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 연서회의 또 다른 바람이다.

물론 그것이 단순히 회원 수의 확장을 뜻하지만은 않는다. 서예가 주는 고요와 울림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는 일이면 된다. 연서회 회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분명 거기에 있었다.



이곳, 문방에서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경직된 책임자의 얼굴은 사라지고, 묵향이 스민 따뜻한 기운만이 흘러넘친다. 손에 잡힌 붓끝은 예리하지만, 표정에는 여유와 미소가 감돈다. 문방에 앉은 순간만큼은 세월의 길이와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마주할 따름이다.



1) 오산 권희영(지도), 지강 손선희, 원당 민경화, 현암 안현석(회장), 충암 김차승, 봉산 방을봉, 지천 이상우, 천산 나승두, 이산 정원섭(총무)

제7회 아시아 교정긴급대응팀 대회, 한국팀 종합 3위 성과



International Correctional Leadership Programme (ICLP) & Asian Prisons Lockdown Challenge (APLC)

Closing Ceremony
25 September 2025

Guest of Honor
Ms S. An
Senior Minister of State
for the Interior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긴급대응팀이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 교정긴급대응팀(APLC) 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클러스터 1-2-3), 마카오, 홍콩,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6개국 교정 긴급대응팀이 참가했다.

글_서선미 사진_교정본부

땀과 팀워크로 빛은 성과, 한국팀 종합 3위

창이 교정시설 및 스피어(SPEAR, 싱가포르 교정 긴급대응팀) 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장애물 ▲사격 ▲폭동진압 ▲인질구출 네 가지 종목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체력 테스트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위기 상황을 임의 설정한 이번 대회는 땀과 긴장, 그리고 팀워크가 승부를 가르는 순간들로 채워졌다.

한국 대표팀의 기량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특히 장애물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체력과 민첩성에서 아시아 정상급임을 입증했고, 폭동진압 2위, 인질구출 3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종합 3위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종합 우승은 마카오에, 준우승에 돌아갔다.

14명의 대표단, 땀과 협력으로 빛은 성과

한국 선수단은 단장 1명, 선수 8명, 통역 1명, 방송팀 2명, 행정지원 2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단순히 경쟁을 넘어, 아시아 각국 교정 긴급대응팀과의 교류를 통해 전술적 노하우를 나누고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경기만큼이나 교정 현장의 경험과 이야기가 오갔다. 서로 다른 제도와 환경 속에서도 “수용자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을 지킨다”는 공통의 사명감은 국경을 넘어 선수단을 하나로 묶기에 충분했다.

이번 싱가포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교정 긴급대응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장이었다.



그 무대에서 한국팀이 거둔 성과는, 곧 교정 현장에서 묵묵히 훈련하고 준비해 온 땀방울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성과는 다시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회를 마친 선수단은 지난달 26일 귀국했다. 하지만 이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 교정 긴급대응팀은 2026년 5월, 미국 마운즈빌에서 열리는 세계 교정긴급대응팀 대회(MPR, Mock Prison Riot)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 18개국 50개 팀이 참가하는 무대에서 한국팀은 다시 한번 기량과 저력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된다.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본격 도입 수용자 심리상담 전문성 강화 기대

법무부 교정본부가 최근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상담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용자 심리치료의 질을 높일 전망이다.

글_서선미

교정기관 상담 품질과 전문성 제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 심리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8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멘토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 데 이어,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간 것. 그동안 교정기관은 직무교육(연 1회)과 상담 사례회의(연 1~3회)를 실시하여 직원역량을 제고했으나 상담 전담직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교정본부는 전국 교정기관에 배치된 내부 수련감독자 중 일부를 멘토로 선발해 전문적인 자문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 전담 직원들은 보다 전문성 있는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

게 되었으며, 나아가 직원들의 상담역량 강화를 통해 수용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명 멘토, 9월부터 2년간 활동

교정본부는 이번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난 7월 전국 55개 교정기관의 내부 수련감독자를 대상으로 멘토 활동 희망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21개 기관에서 22명이 지원했으며,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2년간 멘토로 활동하게 된다.

멘토는 수용자 상담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5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 지도 실적은 상시학습 시간(연 최대 30시간)으로 인정된다. 멘티는 수용자 상담을 담당하는 교정기관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mini interview

이상옥 전주교도소 교위

“함께 배우며
성장하겠습니다”

심리치료팀에서
수용자들을 만나
상담할 때마다, 그들의
작은 변화가 제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비록 경험과
지식이 많지는 않아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조은혜 전주교도소 간호주사보

“상담자의
감정까지 함께
돌보겠습니다”

정신전문병원에서
12년간 근무하고, 2012년
부터 교정기관에서 상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자도 감정 및
에너지 소모로 지칠 때가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상담의 방향은
 물론 상담자의 감정
 관리까지 고민하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이성덕 홍성교도소 교위

“교정 행정의
선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멘토링은 상담직원의
심리적 부담과 고립감을
줄이는 동시에, 조직
내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직무 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와
수용자 모두가 존중받는
교정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타운 한복판, 과밀수용 속 출정수용자의 든든한 동행자

인천구치소

인천구치소는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 바로 뒤, 법조타운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12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 곳곳에서 교도관과 수용자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하루에도 수백 명의 미결수용자가 재판, 진료,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이동한다. 이에 인천구치소는 아예 수용자의 안전한 이동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고려해 지하 복도를 인접 법원과 연결하고 있었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소년형무소에서 현대 구치소까지

좁은 통로 안에 울리는 발자국, 낮게 오가는 교도관의 안내. 재판을 받기 위해 지하 복도를 걷는 수용자의 발걸음은 긴장과 불안으로 무겁다. 조용히 그 옆을 걷는 교도관 역시 편하지만은 않은 것은, 그 무거운 분위기가 좀처럼 적응되지 않아서다. 그래도 인천구치소의 직원들은 조용히 곁을 공감과 신뢰를 건넨다. 그래서 수용자들의 발걸음도 조금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수용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불안과 긴장을 달래며 출정에 임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인천지역에 근대식 감옥이 생겨난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극성을 부리던 무렵이다. 1908년 경성감옥 설치와 함께 감옥분감 설치령을 제정한 데 따른 것으로, 1909년 2월 16일 인천이사

청 건물을 인계받아 경성감옥 인천분감이 전국 처음으로 설치됐다. 인천분감을 시작으로 부산·전주·의주·춘천·원산·청주·대구 등 전국 8개 도시에 감옥 분감이 들어선 것.¹⁾

인천감옥은 백범 김구 선생이 수감됐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1914년 일본 군인을 살해한 일명 '치하포 사건'으로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김구 선생은 인천감옥으로 이감되어 항만 축조공사 등에 강제노역을 당한 뒤 같은 해 7월 가석방됐다. 이에 앞서 1897년에도 해주감옥과 인천감리영에서 두 차례 옥고를 치르며 모진 고문을 겪었던 김구 선생의 인천과의 인연은, 이 지역 감옥사가 단순한 수용 시설을 넘어 역사적 사건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1) 천영기, (2021.07.12.), 개항장 소개 '중구청 담벼락'과 '인천감리서' 터를 찾아, 인천투데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36년 7월 10일, 부천군 문학면 학익리에 '인천소년형무소'가 설립되며 현대적 의미의 교정시설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개성과 김천 소년형무소의 수용 인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새로 만들어진 이 기관은 1935년 착공되어 1938년 3월 준공됐고, 소년 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관 건물과 3,000평 규모의 운동장, 가축사육장, 채소밭을 갖췄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청의 미육군형무소로 사용되기도 했고, 1947년 인천소년형무소로 재지정되었다. 이후 6·25 전쟁과 여순항쟁, 제주 4·3 항쟁 관련자 수용 등 격동의 역사를 거치며 탈출과 재수감 사건이 반복되기도 했다. 1961년 '형무소'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면서 인천소년교도소가 됐고, 1990년 소년 수용 기능이 천안 소년교도소로 이전되며 기존 건물은 미결수용자를 위한 인천구치소로 전환됐다. 그러다가 1997년 구 건물을 철거, 동일 부지에 현대식 12층 건물을 신축하며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과밀과 구조적 부담에도 흔들림 없는 가치

과밀 수용률이 150% 이상에 이르는 인천구치소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 게다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마약 밀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문 도시로, 최근 몇 년 새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재판부 증설과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 등 사법 체계의 확장으로 항소심 재판이 늘어날 전망이기도 하다. 이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장기 체류를 유발하며, 과밀 수용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되는 연유에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내부 관리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 과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천구치소가 지향하는 교정철학은 단순한 운영 목표를 넘어선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향하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국가적 이념과 궤를 같이하지만,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구현"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

미결수용자는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존재로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며, 이들의 방어권과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다. 인권과 안전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같은 목표 내 두 가지 가치와 같다. 인간다운 환경에서 인권이 보장될 때 수용자 간 갈등과 폭력은 줄고, 수용자들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정·재활 프로그램 또한 단순한 수용자 관리의 도

구를 넘어, 사회 전체의 재범 방지와 안전망 구축이라는 거시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 그런 만큼 인천구치소는 범죄 유형별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폭력·마약·알코올 중독·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수용자를 대상으로 근본적 원인을 치료한다. 또한 초·중·고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과 검정고시 응시 기회를 제공해, 수용자들이 학업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설치된 '외부협력 스마트진료센터'를 통해 초빙·원격 진료, 의료정보 공유, 긴급회의 등 다양한 협업 기능을 수행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의료 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직원·지역·수용자 아우르는 교정 전략

과밀 수용과 업무 부담 속에서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인천구치소도 일부 수용동에서는 교도관 1명이 100여 명을 관리하는 일이 일상이다. 이에 인천구치소는 직원 건의함을 정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직원 간 수평적 소통을 촉진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문제를 공동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직원들 역시 직업적 사명감을 강화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회적 가치와 연결됨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된다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이다. 교도관과 수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라미 봉사단'과 '사랑의 손잡기'를 운영하며,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을 정

기적으로 방문한다. 또 체육시설을 개방해 시민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는 교정시설이 단순한 법 집행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다. 미래를 향한 인천구치소의 핵심 목표는 명확하다.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재사회화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상 6층 규모의 수용동 증축과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용자가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법과 질서를 확립하면서도 따뜻한 인간적 교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천구치소의 노력은, 시대적 과제와 지역사회의 기대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교정기관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단순 치료 넘어 수용자 재활로 '건강'과 '사회 복귀'의 이음새

인천구치소 의료과

교정시설 내 의료과의 기능은 단순히 아픈 수용자를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수용자들이 폐쇄된 환경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질병을 관리함은 물론, 이 너머의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돕는 '치유와 재활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일반 병원에서와는 달리 교정시설의 의료과는 '의료'와 '교정', 그리고 '재활' 등 겹겹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전염병 예방과 맞춤 치료의 최전선

인천구치소 의료과가 수용자 입소의 첫 단계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흉부 X-ray 촬영으로 결핵 여부를 확인하고, 혈액·소변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잠재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시설 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있어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후 질환이 있는 수용자는



의료 거실이나 지정된 치료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이때 의료과 직원들은 고혈압, 당뇨, 간염과 같은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필요시 외부 병원과 연계해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령 수용자나 장애인 수용자처럼 취약 계층의 경우, 외부 협진과 맞춤형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인천구치소 의료과는 의사 3명, 공보의 2명, 약무사무관 1명, 간호사 3명, 의료 기술주사보 1명, 일반직원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수용자의 진료·건강 관리와 응급 대응 및 안전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의료과의 주요 업무는 정신과 질환, 만성 질환, 전염성 질환 관리 등으로 나뉜다고 한다. 수용자들은 사회 부적응이나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우울증·불안장애·적응장애를 겪거나, 마약·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의료과는 상담과 치료를 병행, '심리적 안정 도모'와 '재사회화 지원'에 주력하게 된다고.

수용자 중 상당수가 고혈압·당뇨·간염·잠복결핵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입소 후 발병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꾸준한 투약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고혈압·당뇨 환자의 경우 혈압과 혈당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증상이 심한 환자는 별도의 치료 거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필요시 외부병원과 연계, 혈액 투석 등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은 물론이다.

건강 관리와 긴급 대응 체계 꼼꼼히

폐쇄된 환경의 특성상 전염성 질환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가령, 호흡기 질환이나 결핵·피부병은 집단 내 확산 위험성이 높아, 신입 및 이입자 진료를 통해 조기 발견과 예방에 힘을 필요가 있다. 이에 인천구치소 의료과는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결핵 환자는 격리 치료와 지속적 관리를 통해 확산을 차단한다. 시설 내 부는 정기적인 소독으로 위생 환경을 유지한다. 아울러 다중 만성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 고령 수용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외부 협진을 통해 노인성 질환 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장애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지체장애 등 유형에 따라 생활 지원과 건강검진을 병행,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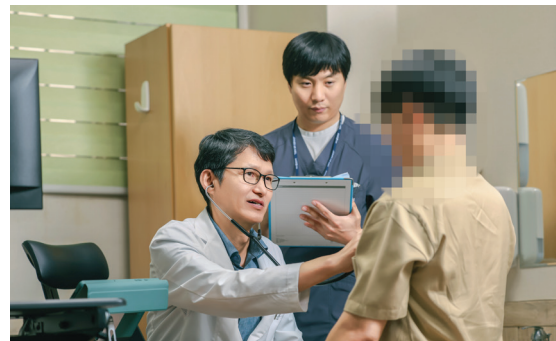


응급 상황 대응도 의료과의 핵심 업무다. 자해나 급성 심혈관 질환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의료과는 ‘신속한 조치’와 ‘외부 의료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삼는다. 현장에서는 간호사나 당직 의료과 직원이 가장 먼저 환자에게 접근해 응급 처치를 시행하고, 즉시 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이어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해 구치소 내 처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하면 외부 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결정한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보안 인력을 포함한 호송팀이 인근 응급실로 신속히 이송, 병원 측에 사전 연락을 취해 환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도착 즉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 진료센터와 심리치료 중심의 재활체계

이 같은 대응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구치소는 지역 병원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아인병원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외부협력 스마트 진료센터’는 시설 내 의료 인력·장비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장치다. 의료과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화상 통화로 외부 전문의에게 전달하고, 즉각적인 자문을 통해 치료 방향을 논의하는 구조다. 이는 환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하는 이러한 협력 체계는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과 교정시설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된다. 인천구치소 의료과의 역할은 신체 질병 치료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복귀를 앞둔 수용자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기 어려운 현실은 외부 정신병원 협력이나 원격 진료를 통해 보완하되, 내부적으로는 심리치료팀과 사회복귀과가 함께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불안장애·약물 중독에 대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바로 ‘재활’을 이어가기에 용이하다. 약물 중독자에게는 단순한 투약 중단이 아닌 심리 상담과 행동 치료를 병행해 중독의 뿌리를 해결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수용자가 직업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따라서 심리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회성 회복 훈련이야말로 출소 후 원만한 대인 관계 형성과 사회 적응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의료과가



수행하는 역할은 결국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건강한 사회 복귀를 뒷받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 강화와 근무 환경 개선 주력

인천구치소 의료과 역시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만큼 전문성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이 꾸준히 요구된다고 한다. 인천구치소는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먼저 외부 학회·세미나·전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해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외부 병원 전문의와의 원격 협진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응급 처치·감염병 대응 훈련 같은 자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열악한 조건과 높은 정신적 부담을 고려해 위험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휴식 공간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준다. 또 수용자의 자해·폭력 상황에 대비해 보안 인력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행정 업무 전산화·자동화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여 직원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러한 노력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인천구치소 의료과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전문 인력 확충,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의료 장비 현대화와 병실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인력을 확대해 상담·치료를 정규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재활 중심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진료센터를 고도화해 원격 진료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전문의 협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외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와 이송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mini interview

김찬성 의료과장



인천구치소 의료과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수용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정시설 내 숨은 조력자죠. 특히 수용자가 증상을 과장하는 경우도 많아, 신뢰관계(Rapport)를 유지하며 세심히 관찰하는 덕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용자들이 비록 온갖 불평과 불만을 뽐내더라도 끝까지 들어줄 것을 독려하는 편입니다. 모름지기 좋은 의사란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해요. 수용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은 관심이, 결국 그들에겐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의 ——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와 시사점(하)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목차

- I. 들어가며
- II. 영국의 교정환경 및 교정처우의 현실
- III. 영국 정부의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
- IV.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III. 영국 정부의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

1. 조기석방제의 확대: 엄격한 준수조건 부가의 모순

영국이 교도소 과밀화 해소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수용자의 조기석방제이다. 보수당 정권기인 2023년 10월 16일에 당시 법무부 장관 알렉스 콜크(Alex Chalk)는 하원에서 수용자들은 만기 출소일보다 최대 18일 전에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UK Parliament, 2023.). 이는 2003년 형사사법법 제248조(Criminal Justice Act 2003., s.248)에 근거를 둔 것으로 법무장관은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만기 전에 수용자를 출소시킬 수 있다.

석방 대상자는 유기징역 대상자이며, 따라서 종신형은 대상에 들지 않는다. 또한 심각한 폭력 범죄, 테러 범죄 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용자는 제외된다. 당시 영국 정부는 이 조기석방제를 교정시설이 특히 과밀화된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행하였다.

노동당은 이 조기석방제를 확대하여 일반 수용자는 형기의 40%, 성범죄와 심각한 폭력 범죄자의 경우 형기의 50%, 그리고 가장 위험한 범죄, 스토킹, 상습적 가정폭력의 경우 형기 67% 정도를 채운 경우 만기 전 출소시킨다고 발표하였다(GOV.UK, 2024. 7. 16.). 조기석방자에게 전자발찌, 통금제한, 보호관찰 등의 준수조건이 부가되며, 위반시 재구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기석방제는 이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80%에 달하였고, 이들이 다시 교도소로 수용되는 회전문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 원인으로 수용자의 조기출소 이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들이 연계되지 못하였고, 부가되는 준수조건이 너무 엄격하여 위반 소지가 크고, 보호관찰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Tidmarsh, 2020.).

2. 엄격한 형사정책: 단기 구금형의 폐해

2022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단기 구금형 수용자는 전체 수용자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단기 구금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는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지속화하고, 둘째는 단기 수용으로 체계적인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교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재범으로 이어져 사회 내 처우 대상자보다 단기 수용자의 재범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국 법무부가 2023년 7월에 발간한 입증된 재범(Proven reoffender)¹⁾ 보고서를 기초로 영국 의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하 구금형에서 석방된 성인의 재범률은 평균 58.5%, 1년 미만의 구금형에서 석방된 성인의 재범률은 56.2%로 나타났다. 1년 이상 구금형에서 석방된 성인의 재범률이 22.2%에 비해 단기 수용자의 재범률이 월등하게 높다(Mutebi, & Brown, 2023: 10).

셋째는 교정비용의 효율성 문제를 들 수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수용자 1인당 교정 비용은 £47,000 정도이었지만, 지역사회 내 1인당 보호관찰 비용은 £3,550 정도로 나타났다. 즉 수용비용이 보호관찰 비용보다 13배 정도 더 필요하였다(Mutebi, & Brown, 2023: 20). 넷째는 단기형 출소자는 사회내 처우 대상자보다 출소 후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고, 취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Ministry of Justice, 2023.7.27.). 또한 단기형 출소자로 전자발찌 부착시 미부착 출소자보다 취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3. 교정시설의 확충, 해외 교도소 활용: 졸속 시설과 교정처우 실효성의 문제

전임 보수당 정부는 2025년까지 교정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보수하여 20,000개의 수용실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였고(UK Parliament, 2023.), 실제로 2024년 7월까지 약 7,500개의 수용실이 증설되었다(GOV.UK, 2024.7.16.). 그러나 급속한 교도소 신설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기존 수용자들이 사용하던 레저공간, 직업훈련공간 및 교육공간 등을 줄여 조립식인 급속배치셀(Rapid Deployment Cells)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수용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Prison Reform Trust, 2023.).

또한 영국은 자국 내 교도소를 증설하지 못하자 알바니아와 에스토니아 등의 교정시설을 임대하여 수용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이 해외 교도소 임대 수용정책은 벨기에와 노르웨이가 네덜란드의 유희 교정시설을 임대받아 자국의 수용자들을 수용한 정책에서 착안 되었다(RT News, 2014. 9.11.). 벨기에는 2010년부터, 노르웨이는 2015년부터 네덜란드와 임대계약을 맺어 네덜란드의 교도소에 수용자들을 이송하

1) 입증된 재범은 수용자의 출소 후 1년의 추적 기간 및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는 6개월간 행한 모든 범죄를 말한다. 영국은 출소자의 재범률을 2011년부터 분기별로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GOV.UK, 2011.).

였다. 교도소장은 이송국가의 국적을 갖지만, 교도관은 양국의 교도관이 함께 근무하며,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의 법령이 적용된다.

그러나 영국의 해외교도소 수용정책은 비판적 요소를 안고 있다(Prisoners Abroad, 2023.). 첫째, 수용자들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접촉 기회가 차단됨으로 정서적인 불안감을 가져오고, 나아가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될 수 있고, 둘째, 영국 교도관이 아닌 주재국 교도관에 의한 교정처우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셋째, 영국 내보다 교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 결국 영국민의 납세부담이 가중되며, 넷째, 수용자들이 영국 내 교정시설보다 재화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인근 기업에서의 인턴 취업 등의 기회를 찾을 수 없어 출소 후 사회정착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다섯째,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기 어렵고 특히 정신과적 치료에 한계를 보여 수용자들이 더욱 극심한 장애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4. 급격한 교도관 확충: 높은 퇴사율과 사회적 비용 증가

영국은 수용인원의 증가 및 교정시설의 확충, 조기석방제 도입에 따른 교정처우 및 사회 내 처우 등을 담당할 교도관 및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가하여 202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65,0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렬별로는 교정직 57.2% 37,202명, 보호관찰직 31.4% 20,412명, HMPPS 본부 및 지역 서비스 등 7,404명 11.4%이다. 이 가운데 3년 미만의 근무 연수를 가진 교정직은 41.5%, 보호관찰직은 35.9%인 것으로 나타났다(HM Prison & Probation Office, 2024.).

그런데 과밀수용과 열악한 시설, 수용자와의 갈등 및 부적응, 보호관찰 사무의 폭주 문제로 퇴사율 및 이직률이 높아 결국 해당 경력이 낮은 직원들에 의하여 교정 및 보호관찰이 이루어져 전반적인 처우의 질이 낮아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교도관은 채용 후 이론교육 3주, 실무수습 7주를 거쳐 교도소에 배치된다(HM Prison & Probation Office, 2024.). 그런데 이는 교육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그마저도 이직 및 퇴사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력이 낮은 선임 교도관들로부터 수습이 이루어져 교정업무와 수용자관계, 교도소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자의 교도관에 대한 폭행 등은 교도관의 안전을 침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려 이직과 퇴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Ministry of Justice, <https://lrl.kr/lg92>). 결국 교도관의 높은 이직율과 퇴사율은 수용자 교정처우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용자의 출소 후 재범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교정비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Independent, 2019.5.30.).

5. 교정시설 감시체계의 작동: 실효성의 한계

영국은 교정시설 등을 감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교도소마다 독립감시위원회(Independent Monitoring Board)를 설치하고, 법무부 산하에 왕립교도소감사원(His Majesty's Inspectorate of Prisons: HMIP)을 두었다. 교도소감사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모든 교정시설, 이민서비스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권한을 가진다.²⁾

HMIP는 모든 교도소를 2~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고위험 시설은 더 자주 감사를 할 수 있다(HMIP, <https://lrl.kr/g41o>). 감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감사관은 모든 시설과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HMIP는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PCAT)의 내용을 반영하여 감사기준을 교도소가 안전(Safety), 존중(Respect), 목적있는 활동(Purposeful activity), 석방준비(Preparation for release) 등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평가한다(HMIP, 2024: 8-9).³⁾

감사방법은 다양한 시간대에 교정시설의 환경과 수용자 처우, 수용자의 일상생활, 면회 등을 관찰하며,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담, 청소년사법위원회, 독립감시위원회, 자원봉사단체 및 변호사 대표, 방문객 등의 의견청취, 각종 문서검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감사결과는 감사 기간 내내 감사대상자에게 피드백되며, 감사가 종료된 후 14일 후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HMIP, <https://lrl.kr/g41o>). 이 최종 결과보고서에 따라 교도소장 및 법무장관 등은 해당 교도소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HMIP에 통보한다. 이때 위 4대 감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경우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1차 긴급통지(Urgent Notification)를 법무장관에게 발송한다. 법무장관은 28일 이내에 해당 문제의 개선

2) 왕립교도소감사원은 1952년 교도소법 제5조 및 제43조(Prison Act 1952, S.5A, S.43) 및 1981년 1월 1일 자 국왕서명매뉴얼(royal sign-manual) 근거를 두어 1982년부터 신설되었다(HMIP, 2024, 7). 교도소감사원은 교도소 및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관이다. 수석감사관(Chief Inspector)은 5년 임기로 교정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3) 이에 대하여 HMIP는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안전(Safety)하게 구금할 여건을 갖춰야 하며, 수용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Respect)받아야 하며, 수용자는 자신에게 이로운 활동에 참여(Purposeful activity)할 수 있으며, 수용자는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Preparation for release)며 이러한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환경을 갖춰졌는가를 감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책을 공개하여야 한다.

HMIP는 1차 감사 후 해당 교정시설에 통보 후 진행확인감사(Independent Reviews of Progress: IRP)를 할 수 있다(HMIP, <https://lrl.kr/g41v>). IRP는 통상 1차 감사 후 12개월이 지난 후 이틀 반 정도에 걸쳐 시행되며, 2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결과보고서는 전혀진전없음(No meaningful progress), 약간의 진전(Insufficient progress), 상당한 진전(Reasonable progress), 훌륭한 진전(Good progress) 등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HMIP의 시설 및 처우 개선 요구를 받아도 실제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원즈워스교도소(HMP Wandsworth)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교도소는 1851년 런던 남서쪽 서리지역에 개설되었고, B 보안등급의 남성전용 교도소로 979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2024년 4월에 실시한 HMIP 감사에서 1,521명을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HMIP, <https://lrl.kr/g41z>). 원즈워스교도소는 2011년 HMIP의 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다(HMIP, <https://lrl.kr/g41C>). 그러나 이후에도 연이어 수용자의 자살, 자해, 탈출, 교도관과 수용자의 성관계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HMIP는 여러 번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긴급통지서를 발송하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HMIP는 2024년 8월 6일 자로 원즈워스교도소에 대하여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열악하며, 낙담스럽다(Very shocking, very poor, and despondency)”고 비판하면서 리더십의 실패(leadership failures)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HMIP, 2024.8.6.).

원즈워스교도소 사례에서 보여준 것처럼 영국은 HMIP와 IMB에 의한 감시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지적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다. 따라서 HMIP와 IMB에 의한 감사와 지적은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Barrington, Silverman, & Hutton, 2021.). 결국 보수당 정부의 교도소 개혁 전략을 노동당 정부에서도 특별한 변화 없이 반복한다는 비난에 직면한 것이다(Theguardian, 2024.7.12.).

IV. 시사점 및 결론

살펴본 것과 같이 영국은 이전 정권이 실패한 교도소 개혁 전략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보수당 정부와 새롭게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교도소 개혁 전략은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교도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단기형의 벌금형 대체, 조기석방 대상자의 준수 조건 폐지 등은 매우 시

급한 정책적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개혁 전략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노동당 정부의 교도소 개혁 전략이 실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대안 없이는 표준 편의인증(Certified Normal Accommodation: CNA)를 충족하는 여유 교도소 거실을 더 이상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역설적으로 이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혁신적인 교정 개혁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영국 노동당 정부의 교도소 개혁 전략이 가지는 문제점에서 한국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엄격한 구금형주의 형사정책과 교도소 조기석방제의 모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림 1> 영국의 교도소 수용인구 추세에서 보는 것처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발생하였지만, 4년 이상 장기형 수용자의 증가와 함께 1년 미만의 단기형 대상자들을 교도소에 유입시켜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화를 이끌고 있다. 나아가 만성적인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석방제를 도입하였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부가조건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다시 수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Barry, 2021.). 이는 영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스웨덴도 약물사범, 청소년사범, 경미한 폭력사범 등에 대한 무관용주의적 형사정책이 교도소 과밀화를 야기하고, 재범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당하는 현실과 같은 맥락이다(허경미, 2024; 허경미, 2023.). 한국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자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지나치게 응보주의적인 법정형제를 규정할 경우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정준섭, 2017.). 이미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하는 등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구금형주의를 대체할 형사정책의 모색이 시급하다.

둘째, 교정처우의 질적 향상을 꾀하지 못하면 출소하는 수용자들은 사회정착에 성공하지 못하며, 재범으로 교도소로 다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영국의 각 교도소 독립감시위원회(IMB)와 왕립교도소감사원(HMIP)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처럼 교화적 기능과 재사회화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구금형은 비인간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미래의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교정당국이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정규교육프로그램, 검정고시, 독학사제, 직업교육



등을 좀 더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교정본부, 2024: 148). 또한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출소자에 대하여 사회내처우 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고용현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영국은 독립감시위원회(IMB)와 왕립교도소감사원(HMIP)을 두고, 교정시설을 감시,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양 기관 모두 법무부에 결과보고서를 통보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정도의 효과만을 발생하고 그 외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으로 환원됨으로써 결국 책임을 묻지 않고 개선책을 다시 발표하는 등의 도돌이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의원내각제를 취하는 영국정부 특유의 정치적 한계일 수 있으나 더 근본적인 것은 교정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교정당국의 리더십 부재가 그 원인일 수 있다(Theguardian, 2024.7.12.). 그러나 한국은 교도소별로 외부 감시기관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독립감시위원회(Independent Monitoring Board: IMB)제의 도입으로 수시로 교정환경과 처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넷째, 영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자해, 수용자 간 폭행,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수용자 탈출이나 도주, 임시석방자 미귀소와 같은 일련의 교정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수용자 관리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국 교정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빈번한 교정사고는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방해하며, 사회적 비용으로 남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재소자 간 폭행, 도주 등 교정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국의 사례는 타산지석이 될 만하다(교정본부, 2024: 129).

다섯째, 영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한 교정처우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며, 이는 교정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수용자 개별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교도소별로 설치되는 분류처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의 보완이 시급하다. 형집행법 제62조는 분류처우위원회는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은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 등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그 심의·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분류처우위원회는 모두 내부 교정공무원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며, 외부로부터는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의견이 거의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 특성을 반영한 개별처우 정책결정시 외부 전문가 의견이 좀 더 반영하고 출소 후 사회정착과 나아가 지역사회 교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분류처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분류처우전담센터의 구축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김선태, 2016.).



여섯째, 영국의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 증가와 수용자 만연된 약물중독자 교정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은 조기석방이나 임시석방에서도 제외되며, 만기출소까지 교도소에 잔류함으로 교도소 과밀화의 중대한 요인이기도 하다. 동시에 출소 후 재범 등으로 다시 교도소로 구금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국도 정신질환 수용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과 전문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투데이, 2023.8.16.). 따라서 정신장애 전담 교도소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의 설치나 치료공동체 도입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유숙경, 2024.).

일곱째, 영국 정부는 교정개혁의 일환으로 신규 교정인력의 확충을 추진해 왔지만 제대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도관의 채용과 인력관리로 교도관의 이직률이 매우 높고 이는 궁극적으로 교정처우의 질을 저하하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도 수용자의 잦은 민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교도관의 스트레스가 높고 결국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정현옥, 김희숙, 2021.). 따라서 교도관들이 적극 교정처우를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수용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지나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 조직문화의 개선도 필요하다(허경미, 2023.).

여덟째, 영국 정부는 자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외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의 정서불안 및 문화적 갈등과 함께 수용자의 상품화(Commercialization of prisoners)라는 비판을 야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과밀해소 대책이 될 수 없다(Minke, & Vanhouche, 2023.). 한국도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교정시설의 확충과 함께 낙후된 시설개선 역시 시급해 보인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교정본부, (2024), 2024년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https://han.gl/fLvDj>.
김선태, (2016),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교정연구, 26(4), pp.203-232.
서울신문, (2024.4.8.), "과밀수용, 인권침해" 3년간 191건 소송에도... 법무부는 자료 제출 거부', <https://han.gl/b4fxQ>.
정준섭, (2017), '형법 규정의 법정형 불균형 문제와 해소방안', 법학연구, 53, pp.149-184.
정현옥, 김희숙, (2021),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2(1), pp.73-85.
유숙경, (2024), '교정시설 치료공동체에 대한 질적메타 종합연구-국외 연구 중심', 교정연구, 34(1), pp.3-42.
이투데이, (2023.8.16.),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https://url.kr/qjftm>.
허경미, (2024),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관련 딜레마와 시사점', 교정연구, 34(1), pp.103-127.
_____, (2023), '스웨덴의 청소년 약물 관련 통제정책 연구', 소년보호연구, 36(1), pp.145-167.
_____, (2023), '교도관의 적극 교정처우의 한계 및 개선 방향-수용자의 권리구제 실태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33(2), pp.3-28.

■ 외국문헌

Barrington, R., Silverman, J., & Hutton, M. (2021), Corruption in UK Prisons: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evidence base, Prison Service Journal January 2021 No 252, 46-57.
Barry, M. (2021). 'Walking on ice': The future of parole in a risk-obsessed society. Theoretical Criminology, 25(2), 325-342.
BBC, (2024.2.19.), Prisoners with mental illness wait too long for beds, <https://url.kr/k3ny9k>.
_____, (2024.7.23.), Prisoner who absconded from jail arrested by police, <https://han.gl/VXBwR>.
_____, (2024.7.29.), Prison officer admits sex with inmate in cell, <https://han.gl/kNdvX>.
Cracknell, M., (2023), The resettlement net: revolving door imprisonment and carceral (re) circulation, Punishment & Society, 25(1), 223-240.
BBC, (2024.6.29.), Prison staff's 'health worries over radon', <https://han.gl/RWEmA>.
Blundell-White, V., Harrison, J., & Hill, J. (2023). Dementia and the prison population: identifying need. British journal of neuroscience nursing, 19(5), 178-181.
Danelly, J., Mann, N., & Reeves, C., (2024), Trends in the Aging Prison Population of England and Wales. Crime, Punishment, and the Elderly, 193-204.
Duke, K., & MacGregor, S., (2024), Responding to 'wicked problems': policy and governance on drug-related deaths in English and Welsh prisons, 2015-2021.
GOV.UK, Working in the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https://han.gl/L1d2L>.
GOV.UK, (2024.7.16.), New Lord Chancellor sets out measures to avert prison capacity crisis, <https://han.gl/YICOX>.
HMIP, (2024), Business plan 2024-25, HM Inspectorate of Prisons, GOV.UK.
_____, (2024), Where we inspect, <https://lrl.kr/g41o>.
_____, (2024), Urgent Notifications and IRPs, <https://lrl.kr/g41v>.

_____, (2024), Report on an unannounced inspection of HMP Wandsworth by HM Chief Inspector of Prisons 22April - 2May2024, <https://lrl.kr/g41z>.
_____, (2011), Report on an unannounced full follow-up inspection of HMP Wandsworth, <https://lrl.kr/g41C>.
_____, (2024.8.6.), Shocking conditions at HMP Wandsworth result of leadership failures "at every level", <https://lrl.kr/tFsT>.
IMB, Statutory role of the IMB, <https://han.gl/A6bY3>.
_____, (2022), Annual Report of the Independent Monitoring Board at HMP Wandsworth For reporting year 1June2021 to 31May2022, <https://han.gl/l6Odn>.
_____, (2023), Annual Report of the Independent Monitoring Board at HMP Wandsworth For reporting year 1June2022 to 31May2023, <https://bully.kr/EI22FrE>.
lober Legal Post, (2024.7.5.), Mahmood crowned lord chancellor as UK lawyers win and lose in Labour landslide, <https://han.gl/W4LTv>.
Ministry of Justice, (2024), Adult Male Prison Population and Capacity Release, 2024. Assaults to March 2024, <https://bully.kr/7x4kxTD>.
Minke, L. K., & Vanhouche, A. S. (2023). Renting cells abroad: Understanding contemporary policy responses to prison overcrowding. Nordic Journal of Criminology, 24(1), 1-16.
GOV.UK, (2024.7.16.), New Lord Chancellor sets out measures to avert prison capacity crisis, <https://bully.kr/jXgkr1>.
_____, (2011), UK Government, 2011, Proven re-offending statistics: definitions and measurement, <https://bully.kr/9XJZnnh>.
HM Prison & Probation Office, (2024), Become a prison officer, <https://lrl.kr/lg9a>.
_____, (2024), HM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workforce quarterly: March 2024, <https://lrl.kr/tFrd>.
Independent, (2019.5.30.), Exodus of experienced prison staff 'putting public at risk' as 80,000 years of experience lost since 2010, <https://lrl.kr/g41e>.
legislation.gov.UK, Prison Act 1952, legislation.gov.uk, Prison Act 1952, <https://han.gl/241HB>.
Ministry of Justice, (2023.7.27.), Community Performance Annual, update to March 2023, <https://bully.kr/FhM68UE>.
Ministry of Justice, Safety in Custody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Deaths in Prison Custody to June 2024, Self-harm and Assaults to March 2024, <https://lrl.kr/lg92>.
Mutebi, N., & Brown, R., (2023), The use of short prison sentences in England and Wales. UK Paelement. Prison Reform Trust, (2023), Prison capacity crisis won't be solved by newly opened HMP Fosse Way figures reveal, <https://bully.kr/E77HJDj>.
Prisoners Abroad, (20230, The Cheal report - Understanding prisoners abroad - Statistics and analysis - 2022-23-, <https://lrl.kr/tFrc>.
RT News, (2014. 9.11.), Prison break-in: Norway to rent Dutch cells for inmates as 'demand' exceeds capacity, <https://lrl.kr/g4Z5>.
Sturge, G., (2024), UK Prison Population Statistics, The House of Commons Library, GOV.UK.
Taylor, C., (2024). Drugs and disorder: worrying times for prisons, <https://bully.kr/ChnDmMd>.
Tidmarsh, M., (2020), The probation service in England and Wales: A decade of radical change or more of the same?. European Journal of Probation, 12(2), 129-146.
Theguardian, (2023.10.15.), Two-thirds of prisons officially overcrowded in England and Wales, <https://han.gl/C71ZU>.
Theguardian, (2024.7.12.), Sunak and ministers are 'guilty men' in prisons crisis, says justice secretary, <https://url.kr/mjc253>.
UK Parliament, (2023), What is the Government doing to reduce pressure on prison capacity?, <https://han.gl/YY2sb>.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의 효과¹⁾



박근영
진주교도소 보안과 교위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생물-심리-사회모델(Biopsychosocial Model)을 기반으로 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ngel(1977)의 생물-심리-사회모델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정신질환 수용자의 특성과 교정시설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남 소재 A 교정시설의 정신질환 수용자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10명), 비교집단(10명), 통제집단(10명)으로 무선배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에는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을, 비교집단에는 기존 교정시설 프로그램을,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은 11주간 주 5회, 회기당 2시간씩 진행되었으며,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 정신장애 회복, 지각된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사전-중간-사후 반복측정설계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통합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특히 자아존중감 중 자기비하 변인($F=6.382, p<.01, \eta^2=.318$), 사회적 기술 중 협력($F=5.413, p<.01$), 자기주장($F=6.271, p<.01$), 자아통제 변인($F=7.094, p<.001$), 정신장애 회복에서 신체적 회복($F=10.146, p<.001, \eta^2=.426$), 지각된 스트레스($F=8.457, p<.001, \eta^2=.383$)가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기반으로 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이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회복에 효과적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정신질환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장기적 효과 검증을 위한 종단연구, 다기관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정신질환 수용자, 통합재활프로그램,
생물-심리-사회모델, 교정시설,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 정신장애 회복, 지각된 스트레스

1) 본 연구는 2024년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정리한 것임.

I. 서론

정신질환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범죄와의 연관성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27.8%)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2018년 3조 2,139억 원에서 2022년 4조 5,231억 원으로 40.7%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20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양상을 보인다.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2)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 검거 건수는 2018년 7,304건에서 2022년 9,929건으로 36% 증가하였으며, 이중 절도(25.2%), 폭행(13.1%), 상해(8.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이 65%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사법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치료적 개입과 사회복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현황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법무부(2023) 통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3년 2,607명에서 2023년 6,094명으로 133%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용자의 약 10.77%에 해당한다. 이들은 우울증(45.2%), 불면증(23.1%), 조현병(18.7%) 순으로 진단받고 있으며, 일반 수용자에 비해 자살 위험이 3.2배, 규율위반 가능성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전국 정신질환 수용자 6,094명 중 실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350명(5.74%)에 불과하다.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단순한 만족도 조사나 사전-사후 비교에 의존하고 있으며, 엄격한 실험설계를 통한 효과 검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프로그램 구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기관별로 상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넷째, 현장 전문가의 부족이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교정공무원이나 외부 강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진다. 다섯째, 지역사회 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출소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치료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효과적인 치료와 사회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ngel(1977)이 제시한 생물-심리-사회모델(Biopsychosocial Model)은 정신

질환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통합적 관점을 제공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치료와 회복은 약물치료(생물학적), 심리치료(심리적), 사회적 지지(사회적) 요소가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효과적이다. 특히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일반 정신질환자와 달리 범죄행동이라는 복합적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서 범죄행동 변화, 사회적 기술 향상, 스트레스 관리 능력 증진 등 다차원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기반으로 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 정신장애 회복, 지각된 스트레스 등 주요 심리사회적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한 실험설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효과적인 치료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교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는 오랫동안 범죄학, 정신의학,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초기 연구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연구들은 보다 세밀하고 균형잡힌 접근을 보이고 있다. Fazel과 Seewald(2012)의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폭력 범죄 위험률은 일반인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주로 조현병, 양극성 장애, 물질사용 장애 등 특정 질환에 국한되며, 모든 정신질환자가 높은 범죄 위험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손지훈 등(202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전체 인구의 0.3-0.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특정 범죄 유형에서는 일반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조현병 환자의 경우 병식 부족과 망상, 환각 등의 양성 증상이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약물 남용이 동반될 경우 위험성이 더욱 증가한다.

Monahan(1981)은 정신질환자의 범죄행동 예측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제시했다: (1) 과거 폭력 경험, (2) 어린 나이, (3) 남성, (4)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5) 알코올 및 약물 남용, (6) 정신병적 증상의 존재. 이러한 요인들은

단독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치료 순응도가 낮거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 재범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

2.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현황

전 세계적으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교도소 수용자의 40%, 지방교도소 수용자의 64%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ames & Glaze, 2006). 유럽 연합 국가들의 평균은 약 63%로 나타났으며(Blaauw et al., 2000), 이는 일반 인구 대비 3-4배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총 6,09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10.77%를 차지한다. 이는 2013년 2,607명(4.8%)에서 10년간 133% 증가한 수치이다. 질환별로는 우울증(45.2%), 불면증(23.1%), 조현병(18.7%), 불안장애(8.3%), 양극성 장애(4.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33.6%)와 50대(28.9%)가 가장 많고, 성별로는 남성(87.3%)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은 일반 수용자에 비해 다양한 문제를 보인다. 첫째, 자살 위험이 3.2배 높다. 2022년 교정시설 내 자살 사건 37건 중 14건(37.8%)이 정신질환 수용자에 의한 것이었다. 둘째, 규율위반 가능성이 2.8배 높다. 충동조절 장애, 대인관계 문제, 스트레스 취약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셋째, 사회복귀 준비도가 낮다. 직업훈련 참여율이 23.4%로 일반 수용자의 67.8%보다 현저히 낮으며, 가족 및 사회적 지지체계도 취약하다.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치료기관인 전주교도소에서는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교정기관에는 심리치료센터 또는 심리치료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350명(5.74%)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정신질환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생물-심리-사회모델과 통합재활프로그램

생물-심리-사회모델(Biopsychosocial Model)은 1977년 Engel에 의해 제시된 통합적 의학 모델로, 질병과 건강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단순히 뇌의 생물학적 이상이나 개인

의 심리적 문제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사회적 환경과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물학적 요인은 유전적 소인,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뇌구조 이상, 호르몬 변화 등을 포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신경전달물질 체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약물치료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심리적 요인은 인지적 편향, 학습된 행동 패턴, 성격 특성, 스트레스 대처 방식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요인은 가족 관계, 사회적 지지, 경제적 상황, 문화적 배경, 낙인과 차별 등을 포함한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게 생물-심리-사회모델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제한된 의료 환경과 약물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는 범죄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왜곡, 낮은 자존감, 충동조절 문제 등이 주요 치료 목표가 된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교정시설의 폐쇄적 환경, 사회적 낙인, 가족 관계 단절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통합재활프로그램은 이러한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기반으로 다차원적 개입을 제공하는 치료 접근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기반을 갖는다. 첫째, 위험성-욕구-반응성(Risk-Need-Responsivity, RNR) 모델을 적용하여 개인의 재범 위험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을 제공한다. 둘째, 좋은삶 모델(Good Lives Model, GLM)을 적용하여 결핍 중심이 아닌 강점 기반 접근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셋째, 통합심리치료(Integrated Psychological Therapy, IPT) 원리를 적용하여 인지기능, 사회인지, 사회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표1에서와 같이 생물학적 차원은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안정화를 목표로 정신과적진료와 자기관리프로그램 등 신체건강관리가 포함되었고, 심리적 차원은 자존감 향상 및 인지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인지행동치료, 정서조절훈련, 회복중심치료등의 개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은 사회 적응력과 사회적 유대감 회복을 위해 사회기술훈련, 대인관계훈련, 자원연계 강화를 진행하였다.

〈표 1〉 생물-심리-사회모델 기반 통합재활프로그램의 내용

생물학적 차원: 신체 및 정신 건강 관리	
목표	•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안정화
개입 내용	• 정신과적 치료: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신체 건강 관리: 수용자의 체력 향상과 면역 강화를 위한 운동과 개인위생관리 등 자기관리프로그램
적용 이론	• 생물학적 기반 개입은 생물-심리-사회 모델의 생물학적 요인을 반영하며, 개인의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는 RNR 모델의 '욕구 원칙'을 적용

심리적 차원: 인지 및 정서 기능 강화

목표	자존감 향상 및 인지 기능 강화
개입 내용	- 인지 행동 치료(CBT): 부정적 사고 패턴을 수정하고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돕는 치료 세션 - 정서 조절 훈련: 스트레스 및 충동 조절을 위한 정서 관리 기법 교육 - 회복 중심 치료: 회복 과정에 참여하며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함.
적용 이론	IPT의 인지 및 사회적 기술 훈련 단계를 통합하여 심리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회복하고, RNR 모델의 '반응성 원칙'을 통해 개별 특성을 반영한 심리적 개입을 제공

사회적 차원: 사회적 기술 및 재사회화 지원

목표	사회 적응력과 사회적 유대감 회복
개입 내용	- 사회기술훈련: 의사소통, 자기주장 기술을 강화하여 재사회화 준비 - 자원 연계: 퇴방 후 환소와 출소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자원 연계
적용 이론	생물-심리-사회 모델의 사회적 요소와 함께 IPT의 사회기술 강화 훈련을 적용하여 수용자의 사회적 통합을 돕고, RNR 모델의 '위험성 원칙'에 따라 사회적 기능이 낮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 수용자에게 적용하고 GLM의 개인의 강점과 가치 및 삶의 목표 추구 활용

4. 정신질환범죄 관련 심리 변인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가치감을 의미하며, 정신건강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로 정의했으며, 이는 개인의 행동, 인지, 정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불안,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범죄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자아존중감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범죄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교정시설의 제한적 환경,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기비하, 무력감, 절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상을 악화시키고 자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입은 인지적 재구성, 성공 경험 제공, 강점 발견, 사회적 지지 증진 등을 포함한다. 특히 교정시설 환경에서는 집단 활동을 통한 소속감 증진, 개인적 성취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미래 계획 수립을 통한 희망 증진 등이 효과적이다.

(2) 사회적 기술

사회적 기술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Gresham과 Elliott(1990)는 사회적 기술을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학습된 행동"으로 정의했으며, 이는 협력, 자기주장, 자아통제의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된다. 정신질환자, 특히 조현병 환자의 경우 사회적 기술의 결핍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사회적 고립과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회적 기술 결핍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동료 수용자들과의 갈등이 증가하여 규율위반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교정직원과의 소통 문제로 인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 셋째, 출소 후 사회복귀 과정에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넷째, 취업이나 직장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사회적 기술 훈련은 사회학습이론에 기반하여 모델링, 역할연습, 피드백, 일반화 등의 기법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인 대화 기술, 경청 능력, 감정 표현, 갈등 해결, 협력과 타협 등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훈련한다. 집단 형태로 진행될 때 동료 간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적인 연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정신장애 회복

정신장애 회복은 단순히 증상의 완화를 넘어서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능 회복을 의미한다. Anthony(1993)는 회복을 “정신질환의 파괴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고 희망적이며 기여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정의했다. 회복은 심리적 회복, 사회적 회복, 신체적 회복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심리적 회복은 자기효능감, 희망, 정체성 확립, 의미 발견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회복은 사회적 관계 형성, 사회적 역할 수행, 지역사회 참여 등을 포함한다. 신체적 회복은 신체적 건강 관리, 일상생활 기능, 자기관리 능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회복 과정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의 영역에서의 개선이 다른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교정시설 내에서의 회복 지향적 접근은 몇 가지 특수성을 갖는다. 첫째, 제한된 환경에서도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둘째,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범죄행동과 관련된 죄책감과 수치심을 건설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4)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들을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하며 부담스럽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한다. Cohen 등(1983)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는 개인의 주관적 스트레스 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스트레스 취약성이 높아 증상 악화나 재발의 위험요인이 된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첫째, 환경적 스트레스로는 과밀수용, 소음, 프라이버시 부족, 제한된 활동 공간 등이 있다. 둘째, 사회적 스트레스로는 가족과의 분리, 사회적 낙인,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있다. 셋째,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죄책감, 수치심, 무력감, 절망감 등이 있다. 넷째, 신체적 스트레스로는 제한된 의료 서비스,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등이 있다.

스트레스 관리는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의 두 가지 접근을 포함한다. 문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해결하려는 시도이며, 정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려는 시도이다. 교정시설 환경에서는 문제 중심 대처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서 중심 대처 기술의 습득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선 이완 훈련, 인지적 재구성, 정서 조절 기술, 사회적 지지 활용 등이 포함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소재 A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 남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DSM-5 진단기준에 따라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자, 둘째,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증상이 안정화된 자, 셋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넷째,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다섯째, 잔여 형기가 6개월 이상인 자이다.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자, 둘째,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심각하여 현실 검증력이 손상된 자, 셋째, 심각한 자살 위험이 있는 자, 넷째, 폭력성이 높아 집단 활동에 부적합한 자, 다섯째, 기타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자이다.

초기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총 36명이었으나, 연구 진행 과정에서 실험집단 2명(전원,

개인 사정), 비교집단 2명(프로그램 참여 거부, 징벌), 통제집단 2명(전원, 징벌)이 탈락하여 최종 30명이 연구를 완료하였다. 최종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30대 6명(20.0%), 40대 10명(33.3%), 50대 9명(30.0%), 60대 이상 5명(16.7%)이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4명(13.3%), 고졸 17명(56.7%), 대졸 이상 9명(30.0%)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 22명(73.3%), 기혼 5명(16.7%), 이혼 3명(10.0%)이었다. 정신질환 진단별로는 조현병 22명(73.3%), 양극성 장애 4명(13.3%), 우울장애 3명(10.0%), 기타 1명(3.3%)이었다. 입원 경험은 없음 8명(26.7%), 1-2회 15명(50.0%), 3-4회 5명(16.7%), 5회 이상 2명(6.7%)이었다. 세 집단 간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χ^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사전-중간-사후 반복측정 실험설계(Pretest-Mid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30명을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에 각각 10명씩 무선배정하였다. 실험집단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생물-심리-사회 모델 기반 통합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비교집단에는 해당 교정시설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표준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통제집단에는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았으며, 연구 종료 후 동일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1차 측정(사전)은 프로그램 시작 1주일 전, 2차 측정(중간)은 프로그램 시작 5주 후, 3차 측정(사후)은 프로그램 종료 1주일 후에 실시하였으며, 각 측정 시마다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 정신장애 회복,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였고, 프로그램은 11주간 주 5회(월-금), 회기당 2시간씩 총 55회기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사항을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GIRB-A24-NW-0064).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개인 정보 보호, 중도 포기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으며,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였다.

3.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안한 자아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기비하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9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912, 자기비하 .887이었다.

(2) 사회적 기술 척도

사회적 기술 측정을 위해 Gresham과 Elliott(1990)이 개발한 사회적 기술 평정 체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김향지(1997)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개 문항으로 협력(10문항), 자기주장(10문항), 자아통제(10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56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협력 .923, 자기주장 .918, 자아통제 .931이었다.

(3) 정신장애 회복 척도

정신장애 회복 측정을 위해 이정숙(2013)이 개발한 정신장애 회복 척도(Mental Disorder Recovery Scale, MD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개 문항으로 심리적 회복(11문항), 사회적 회복(6문항), 신체적 회복(8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65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심리적 회복 .942, 사회적 회복 .918, 신체적 회복 .935였다.

(4)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지각된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Cohen, Kamarck과 Mermelstein(1983)이 개발하고 이종하(2018)가 타당화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10)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부정적 경험(6문항)과 긍정적 경험(4문항)

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0=전혀 없었다, 4=매우 자주 있었다)로 응답하며, 긍정적 경험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44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부정적 경험 .819, 긍정적 경험 .793이었다.

4. 통합재활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은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정신건강 교육, 사회기술 훈련, 스트레스 관리, 예술치료, 자기관리, 동기강화상담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프로그램은 11주간 주 5회, 회기당 2시간씩 총 55회기로 진행되었다.

비교집단에 적용된 기존 프로그램은 해당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준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정신건강 교육, 인지재활, 예술치료, 신체활동, 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기간과 횟수는 실험집단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통제집단에는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교정시설 생활만을 유지하였다.

〈표 2〉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의 구성

프로그램	출처 등	프로그램 내용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사 구성 및 진행	1 프로그램 개요 - 자신의 정신질환 알기, 병식
		2 정신질환 1 - 조현병 양성·음성증상
		3 정신질환 2 - 조울증, 우울증
		4 정신질환 3 - 성격장애
		5 정신질환 4 - 자살등 위기상황 관리
		6 약물및증상 관리 1 - 복용하고 있는 약물 파악
		7 약물및증상 관리 2 -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8 교정기관 자원 활용 - 퇴병 후 재발방지
		9 지역사회자원활용 - 출소 후 재발 및 재범방지
		10 정신질환관리계획 - 단·중·장기 계획, 마무리
사회기술 훈련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지침서 (용인정신병원, 2018)	1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2 대화시작, 유지, 종결하기
		3 감사하기
		4 칭찬하기
		5 부정적인 감정 표현하기

사회기술 훈련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지침서 (용인정신병원, 2018)	6	사과하기
		7	요청(요구)하기
		8	자기주장 1(타협과 협상하기)
		9	자기주장 2(문제해결 기술)
		10	소감 발표 및 마무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지침서 (용인정신병원, 2018)	1	스트레스이해 1 - 경험나누기, 원인과 영향
		2	스트레스이해 2 - 대처방법
		3	신체유지기술 1 - 신체적 접근방법 이해
		4	신체유지기술 2 - 이완훈련
		5	인지유지기술 1 - 인지적 접근방법 이해
		6	인지유지기술 2 - 생각멈추기, 행동 바꾸기
		7	인지유지기술 3 - 자기지시훈련
		8	관계유지기술 1 - 사회적 접근방법 이해
		9	관계유지기술 2 - 지지체계 찾기
		10	관계유지기술 3 -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처훈련, 문제해결하기
예술치료 프로그램 (캘리그래피)	외부강사	1 회기	캘리그래피 소개 및 기본 선 연습
		2 회기	자음과 모음 쓰기 - 단어 - 문장 쓰기
		3 회기	과일 & 물놀이 그리기와 채색
		4 회기	건강관리에 관한 글귀
		5 회기	안전에 관한 글귀
		6 회기	그리고 색칠하고 꾸미기
		7 회기	한가위의 추억에 대한 문구
		8 회기	한가위 그림 연습 및 채색
		9 회기	한지에 쓰고 그리기
		10회기	소감나누기
레크리에이션	전담팀	1 회기	마음열기
		2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1
		3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2
		4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3
		5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4
		6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5
		7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6
		8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7
		9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8
		10회기	마무리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인위생 관리목표설정 관리 감사습관 형성	• 소책자로 개인별 지급 후 주3회 확인 (정신건강, 사회기술,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인위생 관리목표설정 관리 감사습관 형성	• 국민체조 실시 & 교육 후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 읽기
동기강화 상담	회복동기 부여 정서적 지지	• 회복목표 나누기 • 정신질환 회복 경험 나누기 • 회복 동기 증진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정규분포 가정을 검증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세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집단과 시기에 따른 종속변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연령범주, 학력, 입원횟수를 공변인으로 설정하고 반복측정 공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C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전체 평균은 21.27±4.89점(범위: 9-36점), 사회적 기술의 전체 평균은 53.37±10.64점(범위: 30-120점), 정신장애 회복의 전체 평균은 64.23±12.84점(범위: 25-125점), 지각된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8.83±5.93점(범위: 0-40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에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왜도 < 2.0, 첨도 < 7.0).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기술($r=.563$, $p<.01$), 정신장애 회복($r=.612$,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각된 스트레스($r=-.584$,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기술은 정신장애 회복($r=.59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각된 스트레스($r=-.521$,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신장애 회복과 지각된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r=-.498$, $p<.01$)이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M±SD	자아존중감	사회적기술	정신장애회복	지각된스트레스
SE	21.27±4.89	1			
SS	53.37±10.64	.563**	1		
MR	64.23±12.84	.612**	.590**	1	
PS	28.83±5.93	-.584**	-.521**	-.605**	1

**p < .01

2. 집단 간 동질성 검증

세 집단의 사전 측정치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자아존중감(F=0.432, p=.653), 사회적 기술(F=0.246, p=.784), 정신장애 회복(F=0.318, p=.731), 지각된 스트레스(F=0.159, p=.854)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3. 자아존중감 변화 분석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표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아존중감 전체 점수에서 측정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274, p<.01, $\eta^2=.280$). 사후검증 결과, 실험집단은 사전에 비해 중간 및 사후 측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자기비하’에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이후 자기비하 점수가 크게 감소하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6.382, p<.01, $\eta^2=.318$).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집단×시기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나(F=4.281, p<.05), 자기비하 요인에서 더 강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6.382, p<.01, $\eta^2=.318$). 실험집단의 자기비하 점수는 사전 12.80±3.14점에서 사후 8.90±2.76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주요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아존중감의 집단별 시기에 따른 변화

집단	측정 시기			F
	사전	중간	사후	
실험집단(n=10)	21.50±4.72	25.30±4.60	28.20±5.07	집단: 4.732*
비교집단(n=10)	20.40±4.35	22.10±4.15	23.00±4.92	시기: 9.146**
통제집단(n=10)	20.90±3.93	21.40±4.30	21.70±4.08	집단×시기: 5.274**

*p < .05, **p < .01

4. 사회적 기술 변화 분석

사회적 기술 전체 점수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표5와 같으며, 집단(F=8.542, p<.01)과 측정 시기(F=19.873, p<.001),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F=7.619, p<.001, $\eta^2=.359$)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위요인 별로는 협력(F=5.413, p<.01), 자기주장(F=6.271, p<.01), 자아통제(F=7.094, p<.001) 모두에서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다. 사후검증 결과, 실험집단은 중간 및 사후 측정에서 사회적 기술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나, 비교집단은 소폭 향상,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 협력(F=5.413, p<.01), 자기주장(F=6.271, p<.01), 자아통제(F=7.094, p<.001)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집단×시기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자아통제 영역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실험집단의 자아통제 점수는 사전 16.30±4.28점에서 사후 25.80±4.92점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표 5〉 사회적 기술의 집단별 시기에 따른 변화

집단	측정 시기			F
	사전	중간	사후	
실험집단(n=10)	52.70±10.15	63.20±9.87	72.10±11.25	집단: 8.542**
비교집단(n=10)	54.10±9.83	58.60±10.54	60.90±11.02	시기: 19.873***
통제집단(n=10)	53.30±8.94	54.90±9.65	55.20±10.37	집단×시기: 7.619***

p < .01, *p < .001

5. 정신장애 회복 변화 분석

정신장애 회복 전체 점수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표6과 같으며,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9.352$, $p<.001$, $\eta^2=.406$). 하위영역별로는 심리적 회복($F=7.418$, $p<.001$), 사회적 회복($F=6.593$, $p<.01$), 신체적 회복($F=10.146$, $p<.001$) 모두에서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으며, 특히 신체적 회복에서 효과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eta^2=.426$). 사후검증 결과, 실험집단은 모든 회복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반면, 비교집단은 일부 영역에서만 소폭 상승,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 심리적 회복($F=7.418$, $p<.001$), 사회적 회복($F=6.593$, $p<.01$), 신체적 회복($F=10.146$, $p<.001$, $\eta^2=.426$)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집단×시기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회복 영역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실험집단의 신체적 회복 점수는 사전 20.80±4.73점에서 사후 32.60±5.84점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심리적 회복 영역에서는 희망감과 자기효능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사회적 회복 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지 인식과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이 나타났다. 신체적 회복 영역에서는 수면의 질 개선, 식욕 증진, 일상생활 기능 향상 등이 관찰되었다.

〈표 6〉 정신장애 회복의 집단별 시기에 따른 변화

집단	측정 시기			F
	사전	중간	사후	
실험집단(n=10)	65.20±12.51	78.90±13.24	90.40±14.62	집단: 6.179**
비교집단(n=10)	64.10±13.05	71.20±13.45	74.30±14.19	시기: 15.640***
통제집단(n=10)	63.40±11.87	65.60±12.08	66.10±13.27	집단×시기: 9.352***

p < .01, *p < .001

6. 지각된 스트레스 변화 분석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표7과 같고, 집단($F=5.918$, $p<.01$)과 측정 시기($F=10.743$, $p<.001$),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F=8.457$, $p<.001$, $\eta^2=.383$)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실험집단은 사전에 비해 중간 및 사후 측정에서 지각된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감소



하였으나, 비교집단은 소폭 감소에 그쳤고 통제집단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는 부정적 경험($F=7.962$, $p<.001$)과 긍정적 경험($F=6.183$, $p<.01$) 모두에서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다.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 부정적 경험($F=7.962$, $p<.001$)과 긍정적 경험($F=6.183$, $p<.01$) 모두에서 유의한 집단×시기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부정적 경험 점수는 사전 18.40±4.12점에서 사후 11.20±3.67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긍정적 경험 점수는 사전 10.30±2.98점에서 사후 7.70±2.84점으로 개선되었다(역산 점수이므로 감소가 개선을 의미).

〈표 7〉 지각된 스트레스의 집단별 시기에 따른 변화

집단	측정 시기			F
	사전	중간	사후	
실험집단(n=10)	28.70±5.85	23.40±5.23	18.90±4.98	집단: 5.918**
비교집단(n=10)	29.30±6.12	27.60±5.91	26.50±6.28	시기: 10.743***
통제집단(n=10)	28.50±5.76	29.10±6.05	29.80±6.33	집단×시기: 8.457****

p < .01, *p < .001

종합 결과: 통합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으며, 특히 정신장애 회복($\eta^2=.406$)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지각된 스트레스($\eta^2=.383$)에서 두 번째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는 11주간의 단기 개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치료 효과를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기반으로 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통합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이다.

첫째,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특히 자기비하 요인의 감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이 경험하는 낮은 자존감과 자기비하적 사고가 체계적인 개입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 향상은 우울감 완화, 희망감 증진, 자살 위험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적 재구성, 강점 발견, 성공 경험 제공 등의 기법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기술의 향상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나타났으나, 특히 자아통제 영역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이는 교정시설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자아통제 능력의 향상은 충동적 행동 감소, 규율위반 예방, 대인갈등 해결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사회기술 훈련에서 활용된 모델링, 역할연습, 피드백 등의 기법이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 습득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신장애 회복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특히 신체적 회복 영역에서 두드러진 개선이 나타났다. 이는 단기간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회복 과정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신체적 회복의 향상은 수면의 질 개선, 식욕 증진, 일상생활 기능 향상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건강 교육과 자기관리 기술 훈련의 효과로 해석된다.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회복의 개선은 희망감 증진, 사회적 지지 인식 향상, 대인관계 능력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각된 스트레스의 현저한 감소는 스트레스 관리 훈련의 효과를 보여준다. 특히 부정적 경험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긍정적 경험에 대한 통제감도 향

상되었다. 이는 이완 훈련, 인지적 재구성, 문제해결 기술 등의 스트레스 관리 기법이 교정시설 환경에서도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스트레스 감소는 정신건강 개선, 적응 능력 향상, 재범 위험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용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게 적용한 국내 최초의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단일 이론이나 접근법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RNR 모델, GLM, IPT 등 다양한 이론을 통합하여 포괄적인 개입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고려한 보다 효과적인 치료 접근법을 제안한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엄격한 실험설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반복측정 설계를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공변인을 통제하고 효과크기를 제시하여 연구결과의 실용적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이는 국내 교정심리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엄격한 효과 검증 연구의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셋째, 실용적 측면에서 현장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발된 통합재활프로그램은 교정시설의 제한된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검증되었다. 11주간의 단기 개입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프로그램 매뉴얼과 진행 절차는 다른 교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는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전문적 치료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단기 개입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예산과 인력이 제한된 교정기관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치료 효과가 자살 위험 감소, 규율위반 예방, 사회복귀 준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측면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 수용자도 의미 있는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줄이고, 치료 중심의 접근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범죄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보다 포용적인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 문제이다. 연구 참여자가 단일 교정기관의 남성 수용자로 제한되었으며, 조현병 진단자가 73.3%로 편중되어 있다. 이는 연구결과 의 일반화에 제약을 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정기관, 여성 수용자, 다양한 정신질환 유형을 포함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단기 개입의 한계이다. 11주간의 개입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도출했지만, 장기적 효과와 지속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정신질환의 만성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6개월, 1년 이상의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해야 한다.

셋째,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의 한계이다. 모든 종속변인이 자기보고식 척도로 측정되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나 주관적 해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행동 관찰, 동료 평가, 교정직원 평가, 객관적 지표(규율위반 횟수, 의료 이용 빈도 등) 등을 추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정신질환 수용자 특화 평가도구의 부재이다. 사용된 측정도구들이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교정시설 환경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교정시설 환경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교집단의 동질성 확보 문제이다. 비교집단에 적용된 기존 프로그램과 실험집단에 적용된 통합재활프로그램 간의 구조적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엄격한 통제 조건을 설정하여 순수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다기관 다중심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의 일반화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정신질환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출소 후 사회복귀 과정에서의 치료 효과 지속성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교정직원 대상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과의 연계 모델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연구 과정에서 생각한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교정공무원과 일반 수용자에 대한 정신건강교육의 확대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일반 직원에 대하여 법무연수원에 정신질환 이해와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원이 제한적이고, 교육 내용도 현장 근무와 연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연수원 교육은 실질적으로 정신질환 수용자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일반적 교육은 각 기관에서 내부 및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소속 직원과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이해 및 편견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주제의 교

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현실인정과 다각화이다. 정신질환범죄자가 증가하고 교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정신질환수용자의 인원이 6천 명을 넘어가고 있으나 치료적 개입에 관한 연구나 관심은 치료감호에 집중되어 있다. 이마저도 치료감호는 형에 병과되는 것이라 치료감호 종료 후에는 교정기관에서 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교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하여 모두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도 없으며 법무병원 등이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치료감호제도와 법무병원의 역할 확대와 함께 교정기관에 정신질환 집중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이를 위해 정신질환 집중치료기관을 각 청별로 1개 기관씩 전국 4곳을 지정하여 청별로 정신질환수용자 중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자를 집금하여 장기간 치료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정신질환의 유형별 통합재활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교정기관에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현병과 양극성정동장애는 질환의 특성과 치료적 접근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정신질환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프로그램 대상 선정 시 해당기관 수용자 또는 청 관내 수용자 중 소수를 선발하여 1회 치료적 개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집중치료 기관에 수용되는 수용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약물치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이 완화된 후 통합재활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론적, 실용적, 정책적 기여를 하였다. 연구결과는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회복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향후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정신건강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내논문

김향지(1997). 사회적 기술 훈련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검찰청(2022). 2022년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법무부(2023). 2023년 교정통계연보. 과천: 법무부.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손지훈, 김성완, 이상원(2022). 정신질환자 범죄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범죄학, 16(2), 75-98.

이정숙(2013). 정신장애 회복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1(4), 93-125.

이종하(2018).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의 타당화 연구. 스트레스연구, 26(3), 132-148.

전병재(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7-129.

정선영(2001).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기술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23-142.

주소희, 박현수, 김태환(2019). 정신질환자 범죄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외국논문

Andrews, D. A., & Bonta, J. (1998).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2nd ed.). Cincinnati: Anderson.

Anthony, W. A. (1993). Recovery from mental illness: The guiding vision of the mental health service system in the 1990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6(4), 11-23.

Blaauw, E., Arensman, E., Kraaij, V., Winkel, F. W., & Bout, R. (2002). Traumatic life events and suicide risk among jail inmates: The influence of types of events, time period and significant othe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1), 9-16.

Bonta, J., Law, M., & Hanson, K. (1998). The prediction of criminal and violent recidivism among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3(2), 123-142.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4), 385-396.

Corrigan, P. W., Salzer, M., Ralph, R. O., Sangster, Y., & Keck, L. (2004). Examining the factor structure of the recovery assessment scale. Schizophrenia Bulletin, 30(4), 1035-1041.

Engel, G. L. (1977). The need for a new medical model: A challenge for biomedicine. Science, 196(4286), 129-136.

Fazel, S., & Seewald, K. (2012). Severe mental illness in 33,588 prisoners worldwide: Systematic review and meta-regression analysi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00(5), 364-373.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American Guidance Service.

Henn, F. A., Herjanic, M., & Vanderpearl, R. H. (1976). Forensic psychiatry: Profiles of two types of sex offen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3(6), 694-696.

Heseltine, K., Howells, K., & Day, A. (2011). Brief anger interventions with offenders may be ineffectiv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3), 246-250.

Hiday, V. A. (1997).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between mental illness and vio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0(4), 399-417.

Hodgins, S. (1992). Mental disorder, intellectual deficiency, and crime: Evidence from a birth cohor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6), 476-483.

Hodgins, S., Alderton, J., Cree, A., Aboud, A., & Mak, T. (2008). Aggressive behaviour, victimization and crime among severely mentally ill patients requiring hospitaliz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3(4), 343-344.

James, D. J., & Glaze, L. E. (2006). Mental health problems of prison and jail inmate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Kim, K., Cohen, T. H., & Serakos, M. (2015). The processing and treatment of mentally ill person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Monahan, J. (1981). The clinical prediction of violent behavior. Rockvill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Rice, M. E., & Harris, G. T. (1995). Violent recidivism: Assessing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5), 737-748.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Underwood, L. A., & Washington, A. (2016). Mental illness and juvenile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3(2), 228.

Ward, T., & Brown, M. (2004). The good lives model and conceptual issues in offender rehabilitation. Psychology, Crime & Law, 10(3), 243-257.

보호소년을 위한 회복적 교정교육: —— 갈등을 넘어 성장으로



지원근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조교수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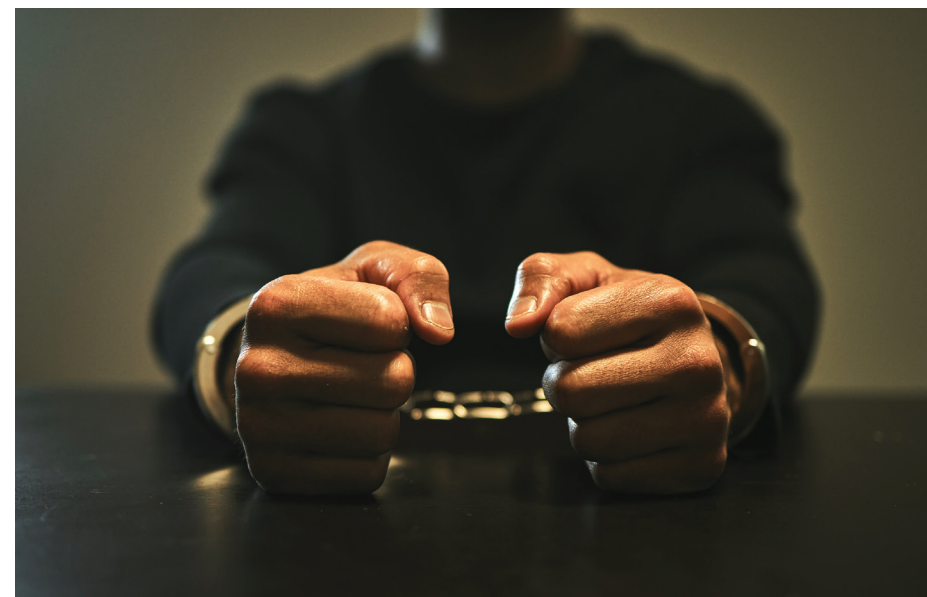
- I. 서론
- II. 교정시설에서의 회복적 정의
- III. 보호소년과 소년원의 특성
- IV.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학교 생활교육
- V. 소년원에서의 회복적 교정교육
-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처벌을 넘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복적 정의를 보호소년의 특성과 소년원의 기능에 맞춰 구현한 회복적 교정교육을 제안하였다. 먼저, 고위험 집단이 수용된 교정시설에서 회복적 정의 실천의 제약을 검토하였고, 보호소년이 소년원 입원 이전에 경험한 다양한 부정적 사건과 소년원의 교정적·교육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일반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 강화 및 공동체적 교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소개하였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교정교육 방안을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교정교육이 교사와 소년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소년원, 보호소년, 비행, 회복, 치유, 회복적 정의



1. 서론

고대부터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뉴질랜드 등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과와 속죄, 배상, 중재, 그리고 화해 등을 촉진하는 공동체적 활동이 실천되어 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의 원복과 손상된 관계의 회복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이후 서구 형사사법 체계에서 범죄에 대한 고유한 대응 방식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개념으로 체계화되었다(Braithwaite, 1998). 이러한 회복적 정의는 1970년대 들어 기존의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에 기반한 서구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법령과 정책, 실무에는 회복적 정의의 이념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주요 이념과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¹⁾

회복적 정의가 먼저 논의된 국외에서는 특히 소년범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성인 형사사법에 비해 교육적·복지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소년사법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자연스러운 양상으로 보인다. 다양한 소년 대상 회복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그 효과성도 평가되어 왔는데, 긍정적인 결과들도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회복적 정의 절차에 참여한 284명의 소년범과 통상적인 소년사법 절차에 참여한 267명의 소년범 간의 재범 발생 시점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회복적 정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더 오랜 기간 재범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효과가 소년의 연령이나 성별, 이전 비행 전력, 비행 유형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회복적 정의가 저위험군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Bergseth & Bouffard, 2013).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지역에서 다이버전된 소년범 중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2년간 재범률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odriguez, 2007).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부터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이백철, 2002; 김용세, 2003), 현재까지 수백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소년범, 특히 법원에서 처분이 결정된 소년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에서 소년범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의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

1) 미국의 경우 20여 개 주에서 균형적·회복적 정의(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가 법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Pavelka, 2016), 영국은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Section 32에 근거해서 마련된 피해자법(Victims' Code)에 가해자의 연령(소년 또는 성인)에 따른 회복적 정의의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House of Commons, 2016).



(손외철, 2011; 장규원, 윤현석, 2011; 이영호, 2009; 한영선, 2010)가 진행되었으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아직 실무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전체 소년범 중에서 수는 가장 적지만 위험성은 가장 높은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²⁾에 관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은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서만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널리 알려진 교정 모델인 RNR(Risk-Need-Responsivity) 원칙에 따르면 보호소년과 같은 고위험 집단은 저위험군보다 강도 높은 처우가 필요한데(Andrews & Bonta, 2010), 이러한 맥락에서 회복적 정의 기반 프로그램이 보호소년에게 적절하게 제공된다면 소년의 개선과 재범의 방지에서 큰 유익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사법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는 소년원 처우에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교육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목표는 보호소년과 소년원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회복’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해·피해로 이원화된 ‘정의’에 대한 인식을 소년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논의를 검토해서 먼저 법원의 처분 결정 이후 교정 단계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 제1조의 2에서는 보호소년을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으로 정의한다. 이들은 처분 유형에 따라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서 생활하면서 교정교육과 필요한 처우를 받는다.

에서 정형적인 회복적 정의가 활용되기 어려운 점들을 정리한다. 이어서, 논의의 대상인 보호소년과 소년원이 사법 체계 내 다른 집단 또는 기관과 다른 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최근 일반 학교에서 시도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의 원칙을 활용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소년들의 상처 회복과 교사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통해 동료와의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는 회복적 교정교육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소년원 처우 전반에서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원칙을 활용한 새로운 교정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교정시설에서의 회복적 정의

1. 강조점 및 효과

회복적 정의는 수사의 시작부터 처분의 집행 종료까지 사법 체계의 여러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처분을 집행하는 교정 단계는 후술할 제약들로 인해 이전 단계보다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기 어렵지만, 제한된 여건에서도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Van Ness, 2007).

소년범이나 성인범에게 부과되는 처분들은 시설 수용 여부에 따라 크게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시설 내 처우에서의 회복적 정의는 시설에서 사회로 복귀할 때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Bazemore & Maruna, 2009). 이러한 접근은 수용된 가해자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피해자와의 손상된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시설에서 사회로 돌아와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주로 국외의 성인 교정시설에서 시행된 이와 같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이 범죄의 해악 인식, 책임의 인정, 피해자 공감, 반성과 사과, 갈등 해결 기술 등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Dhami et al., 2009). 국내 교도소에서는 입실 거부 수용자를 대상으로 회복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보다는 시설 내에서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수용자들이 부정적 감정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소하고, 서클 활동을 통해 비폭력 대화를 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프로그램 평가 결과, 참여 수용자들의

자기 존중감과 분노 통제력이 향상되었고, 충동성과 공격성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김영식, 2021).

다만,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국내·외 연구의 수가 제한적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서구 연구자들은 회복적 정의가 도입되었을 때 대다수 지역에서 다이버전이나 보호관찰의 대안으로 활용되는 지역 사회 기반 회복적 정의가 중시됨에 따라 시설에 수용된 소년에 대한 회복적 접근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한다(Bazemore et al., 2005). 이처럼 제한된 상황에서도 수용된 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회복적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 인식 교육(Victim Awareness Class)에 참여한 소년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는 의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Do, 2006). 국내 소년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폭력 등의 위해를 가한 사건의 가해 소년과 피해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회복적 대화모임 사례에서는 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생활 태도도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 소년은 소년원에 오기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사건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한영선, 2015).

2. 제약과 어려움

회복적 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이 대면해서 피해를 확인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그러나 다이버전 또는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지 않을 정도의 중한 비행과 범죄를 저질러 시설에 수용된 가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보안 문제로 피해자가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가해자를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낯선 환경인 교정시설에서 가해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교정시설 내에서의 가해자-피해자 면담은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다(Doolin, 2020).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Sycamore Tree Project처럼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대리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Goulding et al., 2008; 배임호, 박일연, 2018). 다만, 여기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지적되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제재 완화의 기대 부족

교정 단계는 법원에서 결정된 처분의 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가해자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처분이 가벼운 유형으로 변경되거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처분이 유지되더라도 위험성 평가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보다 완화된 수준의 감호를 받거나 처분이 조기 종료되는 등의 부가적인 유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단계나 법원 단계에서 회복적 정의를 통해 다이버전이나 가벼운 제재가 부과되는 사례와 비교하면 교정 단계의 유익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처분이 이미 집행 중인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유익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Van Ness, 2007). 이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회복적 정의 과정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과거 사건의 직면에 대한 부담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거쳐서 처리되는 데는 통상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³⁾ 법원에서 결정된 처분의 집행은 이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시작된다. 이처럼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고 나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가해자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점에서 참여 의지가 낮아질 수 있다(김은경,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

더욱이, 과거의 잘못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개인 내면의 심리적 어려움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의 대면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수치심과 불안, 자기 비난 등의 심리적 반응은 가해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한 연구자는 이를 ‘수치형’으로 칭하면서 중복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이용식, 2018). 그리고 일부 가해자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기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에 응하기도 한다(김은경,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 따라서, 가해자의 심리와 정서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참여자의 심리적 특성과 준비도에

3) 최근 발간된 한 보고서에서는 촉법소년 대상 소년보호재판의 최종 결정 소요 기간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평균 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수 외, 2023).

따라 회복적 정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는데, 수용된 소년범들은 이러한 문제가 일반 청소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가해 소년들에게 과거 사건에 대해 묻는 것은 회복적 과정의 진정성 있는 참여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Doolin, 2020).

(3)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이중적 지위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법기관에서 공식 처분이 결정된 가해자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소수만 시설에 수용된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들의 성장 과정을 생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가정 안팎에서 학대와 방임, 가정폭력, 보호자의 이혼 또는 구금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최근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Maschi et al., 2011; Albrecht, 2011). 특히, 시설에 수용된 고위험군 소년범은 저위험군 소년범보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을 더 빈번하게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Fox et al., 2015). 이 점에서,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 중 상당수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처분이 집행되는 동안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이들이 이전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혹은 가해자를 용서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과거의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본건의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간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접근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한 참회와 사과로 소년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한 트라우마와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회복적 정의에서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 내면의 치유와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미진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피해자와의 화해가 시도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4) 통제된 환경과 규율 중심의 문화와의 갈등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중시하지만, 교정시설이 보안 중심의 통제적인 분위기를 우선한다면 이러한 가치들과의 조화가 어려워져 회복적 정의의 실천이 힘들 수 있다(Doolin, 2020). 물론, 질서 유지 없이는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없으므로 일정 수준의 규율과 통제는 필수적이나, 지나치게 통제적인 환경에서는 감정의 표현이나 개방적인 대화를 갖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Albrecht, 2011).

자발적 참여는 회복적 정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로 회복적 과정에 참여해서 치유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참여가 강제되거나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불균형적으로 커서 자유로운 선택이 사실상 배제된다면 자발성의 원칙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회복적 접근의 효과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III. 보호소년과 소년원의 특성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10가지의 보호처분 중에서 소년원 위탁·송치 처분은 시설에 수용되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중한 처분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외 소년사범 교과서에서는 소년원과 같은 시설 수용 처우를 소년사범의 마지막 수단으로 설명한다(Cox et al., 2021). 그런데 시설 내에서 소년들의 행동과 생활양식은 개인마다 다르며,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정교육의 효과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년원 입원 이전에 보였던 문제 행동이 소년원에 입원하면서 바로 중단되지 않는 점이다. 시설 입원 이후 소년의 행동 변화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거주 공간이 가정에서 소년원으로 바뀌고, 기존의 대인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며, 소년원 교사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정해진 일과에 따른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등의 변화에 잘 적응하면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되나,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소년원 내에서도 여러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여기에서는 보호소년의 특성과 이들이 생활하는 소년원의 기능과 역할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보호소년의 특성

(1) 소년원 입원 이전의 부정적 경험

1990년대 후반에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⁴⁾의 개념과 이러한 부정적 사건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된 이래 사회과학 전반에서 건강 및 발달상 문제와의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으며(Felitti et al., 1998; Portwood et al., 2021), 최근에는 청소년기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Perez et al., 2018). 신체적 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사건과 비행과의 관계는 오랫동안 다뤄진 주제이지만, ACEs 연구는 특정 단일 사건이 아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부정적 사건들의 총체적·누적적 여파와 비행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Baglivio & Epps, 2016). 그리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보호소년의 성장 과정을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는 이들이 저위험 소년범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유형의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점을 강조한다(Fox et al., 2015; Graf et al., 2021).

가장 많이 논의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적 사건은 모두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는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단순히 ‘사건’으로 간주하기보다 이러한 경험이 발생한 관계적 맥락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보호자와의 관계가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학대 또는 방임되거나 가정 내에서의 여러 부정적 경험들로 인해 보호자와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실패한 아동에게는 이후의 환경과 타인,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진다(Bretherton, 2013). 이 점에서, 서구의 보호시설에 수용된 대다수의 소년범들에서 불안정한 애착이 확인되었다는 결과는 그리 놀랄만한 사실이 아닐 것이다(Zegers et al., 2008). 같은 맥락에서, 보호소년이 소년원에서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보호자의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보호를 제공하는 성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회피나 거부 등의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Mikulincer et al., 2013).

보호소년과 같이 동일 연령대의 다른 집단에 비해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겪은 집단에서는 또 다른 발달상의 문제, 즉 정신건강 이슈가 지적된다. 보호소년처럼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의 정신건강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이들이 시설 입원 이전에 경험한 문제들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PTSD),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임상적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한다(Buckingham, 2016; Becker & Kerig, 2011). 이는 시설 입원 이전에 겪은 부정적 경험들이 적시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처우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보호소년의

4) 일반적으로는 3종류의 학대(신체적·정서적·성적), 2종류의 방임(신체적·정서적), 그리고 5종류의 역기능적 가정환경(가족의 물질남용, 정신질환, 가정폭력, 이혼·별거, 구금)을 가리킨다.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논의되면서 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고되는 사례를 보면 문제의 원인이 비행에 연루되는 시점보다 이전인 아동기에 시작되어 오랜 기간 지속된 경우가 대다수이다(법무부, 2022). 따라서, 소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행동의 개선만을 목표로 하는 조치들보다는 생애적 관점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전 사건들의 여파를 함께 다루는 접근이 더 적절할 것이다.

(2) 수용 중의 문제 행동

보호소년들은 소년원에 입원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 특히, 가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불안과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행동상 어려움을 겪는 소년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Deitch et al., 2013). 아동의 애착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된 Ainsworth의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 실험 결과를 보면,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동은 보호자와 분리되어 낯선 어른과 대면했다가 다시 보호자와 재회한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회피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등의 행동을 나타낸다(Ainsworth & Bell, 1981). 이를 보호소년에게 적용해 본다면, 소년원 입원 전에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되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더라도 가족과 분리되어 낯선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정한 행동을 표출하는 것은 일정 수준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규율 위반과 같은 심각한 사고는 시설의 질서와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의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시설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외에도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 행동을 들여다보면, 소년들의 심각한 문제 행동은 단순히 질서와 시설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년원 내에서의 소년-소년, 소년-교사 등의 다양한 관계에도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소년원을 단순한 수용 시설이 아니라 소년들의 개선과 회복을 위해 마련된 조금은 특별한 생활 공동체로 그려볼 수 있는데(Goulding et al.,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부적응과 문제 행동의 여파는 해당 개인을 분리해서 징계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여러 구성원이 참여해 해당 행동에 따른 피해의 복구와 관계의 회복을 함께 모색할 때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행동상 문제들을 단순히 제지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손상된 관계까지 함께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교정 단계에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 범위 확대와 맥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소년원 : 교정기관이자 교육기관으로서의 다중적 역할

소년원은 소년법과 보호소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호소년에게 교정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소년법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러 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위탁·송치 처분이 가진 특징은 전체 소년법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년을 비행 위험으로부터 차단된 환경에 일정 기간 수용해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설 수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시선도 있으나(Lambie & Randell, 2013), 이는 소년원의 운영 문제라기보다 시설 수용이 필요하지 않은 저위험군처럼 적합하지 않은 대상에게까지 수용 처분이 부과될 때 주로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시설 수용은 소년원의 교정적 성격을 분명하게 나타내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소년원이 규율만을 강조해서 처분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터전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소년원에서는 소년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교과교육, 인성교육, 특별활동, 상담과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법무부, 2024).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들은 출원 후 사회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의 비행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 이처럼 소년원에서 제공되는 각종 처우는 보호소년이 사회로 돌아간 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소년원은 소년사법 체계에서 교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체 청소년 중에서 특수한 집단인 보호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도 수행한다. 보호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원에 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보호소년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원에서는 모든 직원이 ‘선생님’으로 불리는데, 이는 성인 교정시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처럼 교육적 성격이 강조되는 소년원의 또 다른 특징은 보호소년이 부적응 행동이나 규율 위반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대상 소년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제재 중심의 접근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응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국 소년원에서는

최근 들어 징계 절차의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의 원칙을 활용해서 소년들의 규율 위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응은 소년원이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도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경우 징계도 부과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보다 바람직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한영선, 2015). 이러한 접근은 소년원의 교정적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적 기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호소년들이 학교로 명명되는 소년원에서 동료 소년 및 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년원의 이러한 교육적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보호소년들이 문제 행동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경험을 쌓으면서 보다 건전하게 성장한 모습으로 지역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년원의 처우가 반사회성 교정을 위한 제재적 조치뿐만 아니라 보호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감의 함양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학교 생활교육

1. 응보적 생활지도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일반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의 원칙을 학교 현장에 적용한 실천 방안이다. 서구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규율 위반, 학생 간 갈등과 같은 문제를 회복적 정의에 입각해서 대응하려는 논의가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다(McCluskey et al., 2008). 영국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 of England and Wales) 주관으로 지역 소년비행대응팀(Youth offending teams: YOT)이 28개의 초·중등학교에서 폭력과 따돌림의 감소와 학교 이탈 방지를 목표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운영되면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tel, 2005).

국내에서는 2010년대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했는데(이경원, 2019; 이재호, 2020; 안지영, 2021), 논의가 학술적인 면에만 치중해 있지 않고 교사나 실천가의 현장 경험과 프로그램 운영 효과(김은아, 2017; 정민주 외, 2016)도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실제 운영을 위해 광역

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발간해서 배포하는 등(경기도교육청, 2014; 경상남도교육청, 2021) 실천적인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학교 현장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전술한 바와 같이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정의된다. 이전에 사용된 ‘생활지도’라는 용어에는 잘못된 학생을 처벌하거나 학교 규정을 지키도록 훈육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반면, 회복적 생활교육은 응보적 접근에서 벗어나, 관계의 회복과 화해를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의 이념이 추가되어 있다(경기도교육청, 2014). 이러한 접근에서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두지 않고, 학교를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기존의 생활지도가 소수의 문제 학생에 집중한 반면,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습과 활동의 기반이 되는 교실 단위에서 평화로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를 토대로 모든 학생이 존중, 책임, 회복의 원칙에 입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돕는다(강화정, 2020).

2.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 원리와 시사점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가 학교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실천되는 점에서 주요 원리 중 상당수가 회복적 정의와 중복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법 체계의 정형적인 회복적 정의와 달리 교육적 특성이 반영된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 공동체 형성의 중심은 관계이다. 여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교직원도 포함된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함께 만들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회복적 생활교육은 책임감을 향상시킨다. 관계를 토대로 형성된 학교 공동체의 맥락에서 책임감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만약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을 경우,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제 발생 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해결 방식을 활용한다. 제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와 가해자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학생과 교사, 그리고 가족이 수평적 위치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며, 이러한 과정을 배움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넷째,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성찰과

경청을 통해 자신의 필요와 상대의 요구를 인식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대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은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2014).

이러한 원칙 위에서 학교에서의 실천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준비과정으로, 학급 약속 만들기과 활동 전·후 서클 등을 통해 교실에서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두 번째는 심각하지 않은 갈등을 다루는 단계로, 회복적 질문, 적극적 경청, 회복적 성찰, 문제 해결 서클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해서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한다(경기도 교육청, 2014).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관계의 회복을 중시하나, 화해라는 결과보다는 참여를 통한 성장의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둔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작한 핸드북을 보면, 화해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에게 들려주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처럼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므로 관계의 회복이나 화해와 같은 결과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경상남도교육청, 2021).

다만, 회복적 생활교육이 모든 학교 구성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용어와 개념의 모호성, 수평적 관계가 중시되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상부 조직으로부터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구현되면서 발생하는 충돌, 기존 학교 문화와의 부조화 등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강화정, 2020). 다만, 앞서 인용한 것처럼 회복적 생활교육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으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재의 접근을 보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소년원에서의 회복적 교정교육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된 처분이 이미 집행 중이므로, 본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현재 소년원에서는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의 대응 과정에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회복적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회복적 정의의 적용 범위를 소년원의 교육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회복적 교정교육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전제 사항 : 회복의 대상과 범위 확대

회복적 정의에서 ‘회복’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로 한정되며,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복구할 책임이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해자는 회복의 대상이기보다는 회복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런데 앞부분의 문헌 검토 결과를 보면, 보호소년과 같은 고위험 소년범들은 본건 이전에 경험한 여러 부정적 사건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학교 폭력과 같이 또래 집단에 의해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된다(Cuevas et al., 2007). 따라서, 소년원에 입원한 가해 소년이라도 일정 범위에서는 회복의 대상인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다(지원근, 2022).

이처럼 한 개인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대부분의 갈등 사례에서 한쪽만이 100% 잘못된 경우는 드물다.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양쪽 모두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소년원에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할 때, 참여자를 다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명확히 지정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사법 체계가 이미 가해자로 규정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천되는 소년원의 회복적 정의에서 다시 가해자가 누구인지 혹은 누구의 책임이 조금 더 많은가를 가려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부여하기보다, 한쪽이 전혀 잘못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갈등 사례에서는 양쪽 모두를 ‘당사자’로 설정해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소년원 내에서 경험하는 관계는 동료 소년과의 관계 외에도 교사와의 관계,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지만 소년을 지지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따라서 회복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관계는 정형적인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넘어서, 이러한 다양한 관계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잘못된 행동의 여파는 피해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지지해 주는 어른, 친사회적 또래,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등 여러 유형의 관계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회복의 대상과 범위를 넓게 고려하는 것은 소년원에서 회복적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회복적 교정교육의 단계

(1) 자신과의 화해

소년원 위탁·송치 처분으로 인해 외부와 분리되어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보호소년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개선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특히 다른 소년과 비교하면서 스스로에게 낙인을 부여한다면(Feinstein, 2014) 심각한 자기 비난이나 자기 혐오, 자기 파괴적 행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적 교정교육의 첫 단계에서는 보호소년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화해의 손을 건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잘못을 회피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담과 인성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자기 이해와 수용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회복적 정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회복적 정의의 절차와 동일하게, 그간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손상되었으며, 이를 바로잡을 방안을 생각해 보고, 필요한 경우 소년원 교사나 상담자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사과하고 이를 수용하는 경험은 다른 유형의 회복, 특히 타인과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데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다.

(2) 관계 기반 회복적 교실의 조성

다음 단계는 학교의 회복적 생활교육 첫 단계에서 평화로운 교실을 조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소년원 학과반을 회복적 교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조치로 실천되는 회복적 교실의 주요 활동으로는 소년과 교사가 합의해서 구성원의 안전과 수용감(Sense of acceptance)을 높일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소년법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보호소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특히, 구체적인 개입이나 지도 없이 소년들에게 서로 존중하도록 강조한다면,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소년에게는 어려운 과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시 관계적 맥락에서 담당 교사와의 긍정적·지지적 관계가 전해주는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보호소년들은 성장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특히 보호자와의 불안정한 관계로 인해 타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소년사법 체계의 관리를 장기간 받는 동안 사법기관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상황과 필요가 적절하게 이해받지 못한 경험 있다면, 보호자가 아닌 성인과의 관계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년원에서 교사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관계를 형성한다면, 오랫동안 유지해 온 부정적 관점이 변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혹여 보호소년이 중한 문제를 일으키면 징계를 부과할 수도 있으나, 이때도 교사가 여전히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면 소년이 차츰 교사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소년원 교사와 같은 성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는 애착 이론에서 제안하는 안전 기지(Secure base)와 피난처(Safe haven)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자는 소년들이 환경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도록 돕고, 후자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기능한다(Mikulincer et al., 2013). 소년이 교사를 안전기지와 피난처로 여길 수 있는 긍정적인 교사-소년 관계가 확산되면, 소년원은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수용 처분을 받은 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성인 모델을 제공하고 이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유익한 환경으로 기능할 것이다.

(3) 동료 소년과의 갈등 다루기

보호소년들은 소규모 거실에서 다른 소년들과 공동으로 생활하며, 주간에는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과반에서 수업과 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처럼 24시간 동료 소년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 환경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중재와 문제 해결 과정은 소년과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한영선, 2015). 이는 국외의 여러 문헌에서도 소년원과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의 회복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으며(Butler & Maruna, 2015; Goulding et al., 2018; Doolin, 2020), 현재 법무부에서도 회복적 원리에 입각한 갈등 해소 방안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직원 교육, 담당자 워크숍, 사례 공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변의 중재와 지지 등의 도움을 받아

주체적으로 풀어낸다면, 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타인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공동체 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갈등을 제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게 한다. 소년원에서의 생활이 이와 같은 긍정적 경험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소년원 위탁·송치 처분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회에서 다른 공동체 구성원과의 재통합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긍정적인 전망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 특히, 교사가 회복적 정의의 원리를 활용한 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면 소년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소년원에서 회복적 접근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소년에게 회복적 정의를 소개하고, 참여를 통한 유익과 긍정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4) 본건의 책임 인정과 사과

소년들이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소년원에서 새로 맺은 긍정적인 관계가 주는 지지와 안정을 경험하며,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소하는 경험을 했다면, 이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을 통해 소년원에 오게 된 본래 사건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건의 피해자를 소년원으로 초대해서 대면하는 형태의 실천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회복이 필요한 대상을 소년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거나 충격을 입은 이들과까지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 친구, 학교 선생님, 그리고 자기 자신도 대화모임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대리모 대화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피해자와의 대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우려나 수치심,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줄이면서, 피해자를 상징하는 대리자와 책임의 인정과 사과, 그리고 피해의 복구 등과 같은 회복적 정의의 이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Goulding et al., 2008; Dhami et al., 2009). 이러한 대안적 접근은 가해자에게 유익이 있으나, 실제 피해자가 부재한 점에서 회복적 정의가 본래 추구하는 바가 일부 제약된다는 지적도 있다(Doolin, 2020). 그러나 소년원이 교정기관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 내 범죄 피해자의 치유를 지원하는 ‘회복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다른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보호소년이 소년원에서 진행되는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에 참여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반성과 잘못의 인정, 사과의 수용, 복구 방안 모색 등과 같은 회복적 논의를 이어간다면, 참여자 모두가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3. 추가 고려 사항 : 용서의 의미 재고

회복적 정의에서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는 과정의 한 요소로 간주된다(Philpott, 2015).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계에서 수행된 용서 연구에서는 용서가 반드시 화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용서는 경우에 따라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용서의 과정에서 초기 단계로 이해된다(Enright, 2019). 이는 회복적 대화모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를 결심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용서에 대한 얕은 이해는 회복적 정의가 기존 형사사법의 이상적인 대안으로 여겨졌음에도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로 생각된다.

화해와 용서의 차이는 회복적 정의의 또 다른 문제와도 연관된다. 자발성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려 해도 가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면을 희망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공식 절차에서 배제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대안으로 등장한 회복적 정의가 여전히 피해자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의 이러한 접근과 다르게, 용서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지어,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고 사과를 전하지 않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점에서 용서를 화해의 일부로만 간주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

또한, 용서는 ‘용서하기’와 ‘용서 구하기’로 구분된다(Enright &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비행과 범죄로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들에게는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대되지만, 일부 소년은 회피하거나 저항하는 태도를 표출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용서 구하기’부터 시도하기보다, 소년들이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함으로써(‘용서하기’) 용서의 유익을 먼저 경험하도록 한다면 ‘용서 구하기’로 나아가는 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다.

이처럼 용서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소년원 내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소년들의 회복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년원의 여러 역할과 기능 중에서 회복의 성격을 강화하고,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V. 소년원에서의 회복적 교정교육

회복적 정의의 이념을 보호소년과 소년원의 특성에 맞추어 고안한 회복적 교정교육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실행된다면, 소년이 갈등과 어려움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특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으며, 기관 차원의 인식 변화와 구성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Goulding et al., 2008).

또한, 회복적 교정교육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소년의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교사들에 의해 이미 실천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회복적 정의가 여러 문화권에서 오랜 기간 실천되었던 공동체적 치유와 화해의 활동을 체계화한 것처럼, 회복적 교정교육도 소년을 위한 교사들의 헌신과 성과를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회복적 교정교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사 대상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하며, 동시에 교사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 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소년사법에서 이전의 개입이 성공적이지 않았던 소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소년원 교사들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적 교정교육이 부담을 가중하는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현재의 접근을 보완하고 교사들의 지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교정교육의 유익은 소년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년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교사가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었거나 동료 교사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소년원에서의 회복적 실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처럼 교사와 소년이 함께 성장하고 회복하는 경험이 확산된다면 소년원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실천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입각한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화정, (2020), '문제행동 접근 방법으로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경기도교육청, (2014), '회복적생활교육 매뉴얼'.
- 경상남도교육청, (2021),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핸드북'.
- 김영식, (2021),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 연구 - 입실거부 수용자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적용 중심 -', 교정담론 제15권 제1호, pp.93-119, 아시아교정포럼.
- 김용세, (2003), '한국의 형사사법체제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제20호, pp.347-375, 한국형사법학회.
- 김은경,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II)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아, (2017), '회복적 생활교육에 근거한 활동중심 갈등해결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행동분석·지원연구 제4권 제1호, pp.49-73, 한국행동분석학회.
- 박지수, 이지연, 한윤선, 김혁, (2023),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2), '소년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상담사례집 - 관찰아, 다시 봄이 올 거야'.
- 법무부 소년보호과, (2024), '2024학년도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
- 배임호, 박일연, (2018),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교정복지 실천으로서 갈등중재 사례연구: Sycamore Tree Project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28권 제1호, pp.3-25, 한국교정학회.
- 손외철, (2011), '한국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보호관찰 제11호 제2권, pp.109-145, 한국보호관찰학회.
- 안지영, (2021), '회복적 생활교육 구현방안 II: 비폭력대화에 기초한 공감적 갈등 조정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제29권 제3호, pp.247-275, 한국열린교육학회.
- 이경원, (2019), '회복적 생활교육과 도덕교육 -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치유 -', 초등도덕교육 제65집, pp.339-362,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 이백철, (2002), '회복적 사법: 대안적 형벌체제로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3호, pp.137-172,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영호, (2009), '소년보호기관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 방안',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pp.87-110,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용식, (2018), '회복적 사법에 대한 소고 - 소년법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3호, pp.285-320, 한국소년정책학회.
- 이재호, (2020),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쟁점 및 방법적 원리 탐색', 초등도덕교육 제70집, pp.401-431,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 장규원, 윤현석, (2011), '회복적 사법과 소년보호관찰', 소년보호연구 제17호, pp.1-34, 한국소년정책학회.
- 정민주, 김진원, 서정기, (2016), '교사들의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제19권 제2호, pp.37-73, 한국교육인류학회.
- 지원근, (2022),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의 교정 처우에서 '용서하기'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법 제13권 제1호, pp.53-74, 한국법심리학회.
- 한영선, (2010), '소년보호기관에서의 적용가능한 회복적 사법 운영모형 및 실무운영 사례',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pp.51-106,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_____, (2015), '소년원에서의 회복적 대화모임실천 이야기', 교정담론 제9권 제2호, pp.31-52, 아시아교정포럼.

■외국문헌

Ainsworth, M. D. S., & Bell, S. M. (1981). Attachment, exploration, and separation: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In *The life cycle: Readings in human development* (pp. 57-71). Columbia University Press.

Andrews, D. A., & Bonta, J. (2010). Rehabilitating criminal justice policy and practic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6(1), 39-55.

Albrecht, B. (2011). The limits of restorative justice in prison. *Peace Review*, 23(3), 327-334.

Baglivio, M. T., & Epps, N. (2016). The interrelatednes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ong high-risk juvenile offender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4(3), 179-198.

Bazemore, G., & Maruna, S. (2009). Restorative justice in the reentry context: Building new theory and expanding the evidence base. *Victims and Offenders*, 4(4), 375-384.

Bazemore, G., Zaslav, J. G., & Riestler, D. (2005). Behind the walls and beyond: Restorative justice, instrumental communities, and effective residential treatment. *Juvenile and Family Court Journal*, 56(1), 53-73.

Becker, S. P., & Kerig, P. K. (2011).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re associated with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delinquency among detained boy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0(5), 765-771.

Bergseth, K. J., & Bouffard, J. A. (2013).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a restorative justice program for various types of juvenile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7(9), 1054-1075.

Bitel, M. (2005). National evalua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in schools programme.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Braithwaite, J. (1998). Restorative justice. In M. H. Tonry (Ed.), *The Handbook of crime and punishment* (pp. 323-344). Oxford University Press.

Bretherton, I. (2013).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In *Attachment theory* (pp. 45-84). Routledge.

Buckingham, S. (2016). Trauma informed juvenile justice. *Am. Crim. L. Rev.*, 53, 641-692.

Butler, M., & Maruna, S. (2016). Rethinking prison disciplinary processes: A potential future for restorative justice. *Victims & Offenders*, 11(1), 126-148.

Cox, S. M., Allen, J. M., Hanser, R. D., & Conrad, J. J. (2021). *Juvenile justice: A guide to theory, policy,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s.

Cuevas, C. A., Finkelhor, D., Turner, H. A., & Ormrod, R. K. (2007). Juvenile delinquency and victimization: A theoretical typolog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12), 1581-1602.

Deitch, M., Madore, A., Vickery, K., & Welch, A. (2013).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youth violence in the Texas juvenile justice departmen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hami, M. K., Mantle, G., & Fox, D. (2009). Restorative justice in prisons. *Contemporary Justice Review*, 12(4), 433-448.

Do, T. C. (2006). Impact of crime on victims: An evaluation study of a victim awareness class based on a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model (Publication No. 3220437) [Doctoral dissertati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Doolin, K. (2022). Restorative youth detention: The way forward?.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22(3), 367-382.

Enright, R. D., &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 107-126.

Enright, R. D. (2019). Forgiveness is a choice: A step-by-step process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Feinstein, R. A. (2015). White privilege, juvenile justice, and criminal identities: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perceptions and self-identification of incarcerated youth. *Contemporary Justice Review*, 18(3), 313-333.

Felitti, V. J., Anda, R. F., Nordenberg, D., Williamson, D. F., Spitz, A. M., Edwards, V., & Marks, J. S.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abuse and household dysfunction to many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adults: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4(4), 245-258.

Fox, B. H., Perez, N., Cass, E., Baglivio, M. T., & Epps, N. (2015). Trauma changes everything: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Child Abuse & Neglect*, 46, 163-173.

Goulding, D., Hall, G., & Steels, B. (2008). Restorative prisons: Towards radical prison reform. *Current Issues in Criminal Justice*, 20(2), 231-242.

Graf, G. H. J., Chihuri, S., Blow, M., & Li, G. (2021).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justice system contact: A systematic review. *Pediatrics*, 147(1).

House of Commons Justice Committee. (2016). *Restorative Justice: Fourth Report of Session 2016-17*.

Lambie, I., & Randell, I. (2013). The impact of incarceration on juvenile offen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3), 448-459.

Maschi, T., Gibson, S., Zgoba, K. M., & Morgen, K. (2011). Trauma and life event stressors among young and older adult prisoners. *Journal of Correctional Health Care*, 17(2), 160-172.

McCluskey, G., Lloyd, G., Stead, J., Kane, J., Riddell, S., & Weedon, E. (2008). 'I was dead restorative today': From restorative justice to restorative approaches in school.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38(2), 199-216.

Mikulincer, M., Shaver, P. R., & Berant, E. (2013).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therapeutic processes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81(6), 606-616.

Pavelka, S. (2016). Restorative justice in the states: An analysis of statutory legislation and policy. *Justice Policy Journal*, 2(13), 1-23.

Perez, N. M., Jennings, W. G., & Baglivio, M. T. (2018). A path to serious, violent, chronic delinquency: The harmful aftermath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Crime & Delinquency*, 64(1), 3-25.

Philpott, D. (2015). *Just and unjust peace: An ethic of political reconcili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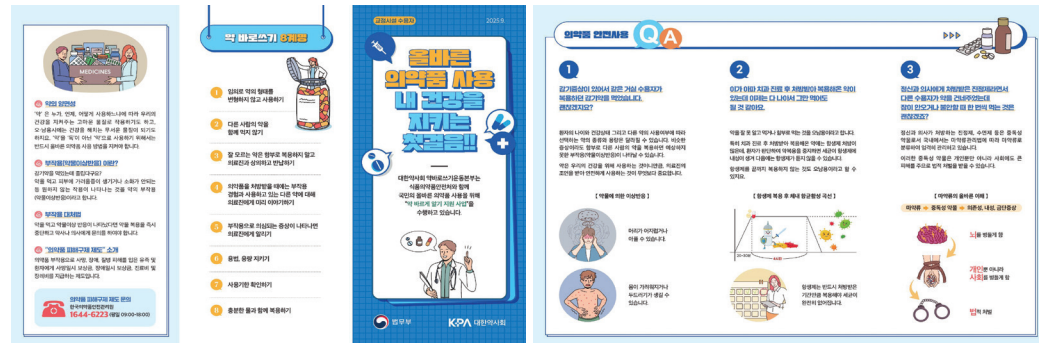
Portwood, S. G., Lawler, M. J., & Roberts, M. C. (2021). Science, practice, and policy related to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Framing the conversation. *American Psychologist*, 76(2), 181-187.

Rodriguez, N. (2007). Restorative justice at work: Examining the impact of restorative justice resolutions on juvenile recidivism. *Crime & Delinquency*, 53(3), 355-379.

Van Ness, D. W. (2007). Prisons and restorative justice. In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pp. 312-324). Willan.

Zegers, M. A., Schuengel, C., Van IJzendoorn, M. H., & Janssens, J. M. (2008). Attachment an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ts during residential treatment.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0(1), 91-103.

수용자 대상 '올바른 의약품 사용' 리플릿 배포



목적
배포 방법
대상 기관
주요 내용

의약품 오남용 인식개선을 통한 올바른 사용 유도
리플릿 원본 파일(2종) 배포
※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와 협업, 임부용, 일반수용자용 제작
전국 교정기관
• 임신 주기별 주의 약물, 필요 영양성분 등 안내
• 약 바로 쓰기 8계명, 약물 이상 반응 대처법 등 설명

장관, 의정부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일시·장소 9.19(금) 09:55, 의정부(교)
참 석 자 장관, 교정정책단장, 서울지방교정청장, 복지과장 등
주요 내용 •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현대화 관련 법조타운 예정부지 현장점검 등

교정사랑복지카드 디자인 변경 및 시행 알림



추진 목적
주요 내용
시행일

복지카드 개선을 통한 교정공무원 소속감 및 자부심 고취
• 카드번호, 이름 등을 뒷면으로 이동한 모던 디자인
• 교정상징문양(해동청)과 독창적인 마감처리로 프리미엄 이미지 구현
2026. 1.1.부터 신규 가입 및 재발급 시 적용

수해복구 업무 유공 직원 장관 표창 수여식



일시·장소 9.30(화) 15:00, 장관회의실
수 상 자 의정부(교) 교사 이은석
홍성(교) 서산지소 교사 정기성
주요 내용 • 장관님 표창 수여, 기념사진 촬영 등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제54회 교정작품전 출품작 심사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9월 18일 제54회 교정작품 전시회 출품작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는 대한민국미술협회 동양화분과 부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심사위원들이 참여, 총 321점을 심사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보라미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서울구치소는 지난 9월 15일 경기도 의왕시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녹향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보라미봉사단과 이인수 교화분과 교정위원을 비롯한 교정위원 5명과 모범수형자 등이 참석,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안양교도소 | 교사 현민준

교정사고 예방 위한 대응훈련 진행

안양교도소는 지난 9월 11일 수용자 도주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도주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적인 역할 분담, 기동순찰팀 출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긴급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구치소 | 교위 이승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직원 참관

수원구치소는 지난 9월 2일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유희지

서울대병원 초청 참관 및 간담회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9월 19일 서울대학교병원 문진수 공

공부원장 등 의료진 7명을 초청, 시설 참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시설 의료시스템을 점검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구치소 | 교사 장경준

시립교향악단 초청 음악회 개최

인천구치소는 지난 9월 18일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인천시립교향악단을 초청, '요기조기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여성수용동 수용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음악을 통해 치유와 정서적 안정, 교정·교화의 가치를 실현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이성환

월례회 및 시상식 개최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9월 1일 월례회를 열고 교정사고 방지 유공자와 성실한 자세로 근무한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박경선 소장은 이날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오근섭

지역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상 참관 행사 진행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9월 16일 지역 내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위원들은 직업훈련과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직접 접하며 교정행정의 역할을 이해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영접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9월 19일 법무부장관의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을 위한 방문을 받았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신축 예정부지를 비롯해 과밀수용 실태,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 상황, 재난 안

전 대비 및 지역 연계 활동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제54회 교정작품전 출품작 심사

여주교도소는 지난 9월 18일 서울지방교정청이 주최하고 여주교도소가 시행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의 출품작 심사를 진행했다. 전국 16개 교정기관에서 출품된 318점의 교정작품은 회화·서예·공예 등 여러 분야에 각자의 경험과 성찰, 희망을 담아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정한길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야기창작발전소 교육생 참관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9월 11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야기창작발전소 교육생 대상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직업훈련소, 독거수용동 등을 둘러본 교육생들은 이후 '소년수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교정행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교도소 | 교도 남윤성

민원실 직원 대상 간담회 실시

춘천교도소는 지난 9월 8일 민원실 직원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 춘천교도소 민원 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민원실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원주교도소 | 교도 이동환

청렴 릴레이 2차 교육 실시

원주교도소는 지난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릴레이 2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무부 청렴 릴레이 1단계 교육 내용을 대면으로 실시,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 방문 영접

강릉교도소는 지난 9월 2일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의 정

책 현장 방문을 영접했다. 이번 방문은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 상황에 따른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한

교정장비 사용 훈련 실시

영월교도소는 지난 9월 17일 전 직원 대상으로 교정장비 사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은 교정장비 담당자와 CRPT 직원의 시범을 통해 장비 사용법을 확인하며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다시금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이수영

교정협의회로부터 물품 기증 받아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 9월 5일 교정협의회, 속초농협 등 방문단 5명을 맞아 수용자를 위한 빙과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교정협의회 회장은 "혹서기 힘들게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손운근

도주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난 9월 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과 함께 도주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도주로 차단을 위한 근무자 배치, 초기대응반 출동, 신속한 상황 전파, 합동 체포·진압 등으로 진행됐다.

소망교도소 | 주임교도관 박성호

CTS 하모니코러스 합창단 초청 공연 마련

소망교도소는 지난 9월 9일 CTS 하모니코러스 합창단을 초청, 수용자들을 위한 특별 특별 공연을 마련했다. 공연은 찬양과 클래식 곡으로 구성돼 수용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송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 9월 11일 소속기관 송무담당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밀수용 대응방안과 주요 소송사례, 송무 보고 방식,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법 등 실무에서의 유의사항이 공유됐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대구대 경찰학부 참관행사 진행

대구교도소는 지난 9월 18일 대구대학교 경찰학부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교정 현장 참관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인권 친화적 교정 환경과 현대화된 시설을 알리고, 학생들의 전공 지식과 직업적 소양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위한 직원 교육

부산구치소는 지난 9월 3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인식 개선을 위해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이승미 대리를 초청,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 부산구치소는 앞으로도 수용자 특성 이해를 위한 정기 교육을 통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최송락

특별사법경찰팀 주관 인권교육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9월 15일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주관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강사로 나선 법무부 인권조사과 박정순 경찰사무관은 이날 인권의 개념, 침해 사례, 교정행정의 인권 중심 업무 방향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창원교도소는 지난 9월 10일 교육실에서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 직원들은 이날 투명하고 공정한 교정업무 수행을 다짐했으며, 이 민열 소장은 "청렴은 교정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는 말로 직원들을 독려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교정시설 통합이전 협력 논의

부산교도소는 지난 9월 11일 부산 강서구청 건설과 직원 5명의 방문을 받아 부산지역 교정시설 통합이전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교정시설 노후화, 이전 필요성, 예정부지 타당성 등이 검토됐으며, 향후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미용협회에 여수용자 미용 후원 받아

포항교도소는 지난 9월 2일 복귀 미용협회의 후원으로 여성 수용자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봉사에는 미용사 5명이 참여, 여성수용자 56명에게 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썼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복합 재난 대비 훈련 진행

진주교도소는 지난 9월 10일 지진·화재·응급환자 발생·도주 등 교정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침착한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후송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구구치소 | 교사 박재원

수성구 통합방위위원회 정기회의의 참관 진행

대구구치소는 지난 9월 17일 만·관·군·경이 함께하는 '2025년 수성구 통합방위위원회' 정기회의 및 현장 참관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날 교정현장에서 이뤄지는 입소부터 출소까지의 체계적 관리를 직접 확인하는 한편, 수용자들을 위한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진보초등학교에 장학금 및 장학증서 전달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9월 22일 진보초등학교 학생 12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농촌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사랑·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직원 및 교도대원 건강검진 실시

안동교도소는 지난 9월 15일부터 3일간 직원과 의무교도대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야간근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고자 진행됐으며, 이를 위해서 서울 영등포병원의 의료진이 교도소를 방문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황인욱

화재진압 실제 훈련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 9월 11일 세탁작업장 화재 상황을

가정하고, 약 30분간 화재진압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초기 대응부터 인명구조, 대피 유도, 화재 진압까지의 전 과정을 실천처럼 체험했으며, 이를 위해 목욕소화전과 살수차 등 장비가 동원되기도 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헌

검정고시 합격 수형자에 도서 증정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9월 11일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수형자들에게 법무부장관의 친필 서명이 담긴 도서를 증정했다. 지난 8월 시험에 합격한 소년수형자 33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배움의 열정을 복돋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손민성

자체 소방훈련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9월 17일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작업장 화재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된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은 긴급 상황 전파, 초동 조치, 수용자 대피 등의 절차를 숙지했다. 또한 자위소방대 편성에 따른 임무를 점검하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박준규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울산구치소는 지난 9월 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울산구치소는 평소에도 반기별로 해당 운동에 참여, 혈액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 서고 있다.

경주교도소 | 교위 강태훈

'청렴볼펜 나눔행사' 진행

경주교도소는 지난 9월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볼펜 나눔행사'를 열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부패방지 의식 확산을 다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이날 청렴 구호가 새겨진 볼펜을 나누며 원칙을 지키는 교정공무원의 자세를 되새겼다.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통영구치소는 지난 9월 18일 통영소방서·통영경찰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낙뢰로 인한 화재나 정전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교정시설의 신속한 초동 대응, 소방서와의 합동 진화 등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기관장·부서장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밀양구치소는 지난 9월 9일 부산시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의 공격적 강의를 초빙, 기관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공 강사는 “이번 교육이 공직사회 속 작은 성차별이나 성희롱 문제를 이해하고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수용자 도주사고 대비 훈련 실시

상주교도소는 지난 9월 11일 수용자 도주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가정,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직원별 행동요령 숙지, 도주방지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신속한 진압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거창구치소 | 교도 방준철

소방훈련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거창구치소는 지난 9월 17일 보안과 직원교육실에서 화재 대비 자체 소방훈련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소방 실습과 재난 예방 영상 시청 후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는 한편, 심폐소생술을 실습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현도

청사 이전으로 새로운 도약 다짐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 9월 26일 청사를 이전, 기관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오세훈 청장은 이날 “새로운 청사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교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대전교도소는 지난 9월 22일부터 3일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기획됐으며, 심리상담과 외지철케어를 진행하는 한편 커피트럭을 제공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청주교도소 | 교위 송화섭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공연 개최

청주교도소는 지난 9월 8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했다. 전주대사습놀이 공연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소고춤, 가야금 병창, 사물놀이, 민요, 사랑가, 판국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졌다. 특히 판소리 ‘심청가’와 진도북춤이 수용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제54회 교정작품전 출품작 심사

천안교도소는 지난 9월 18일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 심사회를 가졌다. 심사는 공예와 문예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수용자와 직원, 교정위원이 참여한 작품이 입선했다. 선정된 작품들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9월 4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사범 전담교도소의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신규직원 임용식 실시

공주교도소는 지난 9월 1일 식품위생서기보 신규직원 임용식을 열었다. 축하와 환영 속에 진행된 이번 임용식은 신규직원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축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충주구치소 | 교사 이재민

대전지방교정청장에 정책 현장 목소리 전달

충주구치소는 지난 9월 18일 오세훈 대전지방교정청장이 방문함에 따라 직원 근무환경과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오 청장은 기관 내외를 순시하며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 현안 등을 논의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재진

‘마중물 교정’으로 교정·교화 한 걸음 더

홍성교도소는 지난 9월 5일 ‘마중물 교정’ 자매상담 및 멘토링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기관장을 비롯, 교정위원 5명과 외부 인사 5명이 참석했다. 멘토링 상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교정·교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구자호

청렴릴레이 교육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 9월 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릴레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진정민

서산지소 직원운동장 개관식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지난 9월 3일 직원운동장 개관식을 열고 완공을 기념했다. 두 달간의 공사를 통해 완성된 운동장을 선보이며, 최장문 소장은 이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체육 시설 마련을 위해 이번 공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전용배

가족사랑캠프로 회복의 시간 가져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 9월 19일 2025년 가족사랑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수용자 및 가족 11명이 참여했으며, ‘쿠키로 만드는 가족 액자’, ‘가족 화분 만들기’, ‘가족 얼굴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전은주

추석 맞아 이웃사랑 실천

광주지방교정청은 지난 9월 24일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 이웃에게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물품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과 보육원에 각각 40만 원 상당의 위문금과 물품을 지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현

9월 월례회 및 직장교육 실시

광주교도소는 지난 9월 1일 월례회를 열고 개인정보 교육과 국민리례, 모범직원 및 격무부서 시상 등을 진행했다. 이후 각 부서의 8월 추진 실적 및 9월 예정사항 보고와 소장의 당부 말씀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많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전주교도소 | 교위 최찬원

광주지방교정청장기 축구대회 우승

전주교도소는 지난 9월 13일 열린 제11회 법무부장관기 지역 예선 및 제17회 광주지방교정청장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지방교정청 소속기관 대표팀들이 참가한 리그전에서 전주교도소는 뛰어난 조직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전승 우승을 거뒀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순천교도소는 지난 9월 16일 광양경찰서 강대중 경감을 초청해 5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주운전 사례 동영상 시청, 음주·무면허 운전 시 보험금 미지급 등 경제적 손실 안내, 음주 고글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준휘

수용자 가족사랑 캠프 실시

목포교도소는 지난 9월 12일 수용자 위기가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가족사랑캠프를 개최했다. 가족서약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은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회복했다.

군산교도소 | 교사 문준호

보라미봉사단 봉사활동 진행

군산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지난 9월 8일 군산 관내 노인요양시설 '행복한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모범수형자와 직원·교정위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청소 등 활동에 참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제주교도소 | 교도 유상준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실시

제주교도소는 지난 9월 19일 제주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진행,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돕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1명의 직원들은 헌혈문화 확산에 앞장섬은 물론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다.

장흥교도소 | 교도 한지현

외부강사 초빙,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장흥교도소는 지난 9월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김영미 강사는 이날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장벽과 불편함,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장애인 수용자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교육했다.



해남교도소 | 교사 안창수

무연고 묘지 벌초 봉사 참여

해남교도소는 지난 9월 11일 목천면 후계농업경영인회와 함께 신공공사당시 개장된 유골 70여 기가 안장된 묘역에서 벌초와 합동 차례에 참여했다. 윤대하 소장은 이날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매년 대신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김대현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진행

정읍교도소는 지난 9월 8일부터 9일까지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힐링부스, 심리상담, 외지결케어, 힐링토크 특강 등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교정공무원의 심신상태를 확인·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모범 공무원



서울남부구치소 | 교감 김성중

김성중 교감은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정행정에 헌신하고 있다. 복지과에서 지출·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김 교감은 평소 철저한 시장조사와 법규 준수를 통해 예산절감과 안정적 기관 운영에 기여했다. 또, 관공서 사칭 신종 사기를 신속히 차단하고, 외해 예방 공문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 대민 홍보를 진행하며 범죄예방에 앞장섰다. 아울러 수용자 상담과 작업참여독려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돕고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하는 등 34년간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모범을 보여 왔다.



부산구치소 | 교사 조대연

서부수용동 관리담당인 조대연 교사는 최근 적극적인 근무자세로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지난 8월 19일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수용자가 구치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동 구치감에 입실한 직후, 법정구속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입고 있던 와이셔츠로 자신의 목을 감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조 교사는 즉시 달려가 해당 수용자를 제지했으며, 위급 상황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수용자의 생명 보호와 교정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



대전교도소 | 교사 김현겸

김현겸 교사는 지난 8월 18일 운동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수용자가 호흡이 미약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 스트레처기로 옮겨 병원으로 후송하는 중에도 수용자 위에 올라타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김 교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해당 수용자는 건강을 회복하고 환소,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모범적 사례를 남겼다.



순천교도소 | 교위 최민재

보안과 미결팀 소속인 최민재 교위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동료들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결팀 서무 업무를 맡고 있는 최 교위는 평소 수용동 팀장과 근무자를 보조하며 수용팀의 운영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였으며, 순회진료 및 종교집회 시 수용자 동행은 물론 질서 유지, 부정 연락 사전 차단하는 등 교정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교정공무원 #힘내요 #응원댓글이벤트

교정공무원을 응원합니다

교정본부 SNS(인스타그램)에
교정공무원 응원댓글을 작성한 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지급합니다.

2025. 9. 29.(월) ~ 10. 20.(월)

주제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종류

학위논문(석사, 박사),
학회 논문, 학술지 논문

제출
방법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원고 송부

※ 제출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피부는 햇빛을 싫어하지만
진드기를 더 싫어합니다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 성분함량, 효과 지속시간이 다르므로 제품별 사용법 확인후 사용권고

예방 3 풀숲 피하고



예방 4 털고, 씻고, 빨래하고

